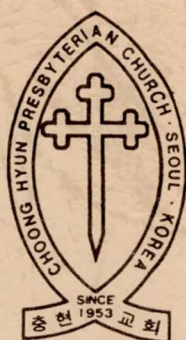


# 교회학교 교재 편찬을 위한 집필자 워크숍 교재



\* 일시 : 1991.8.12(월) - 13(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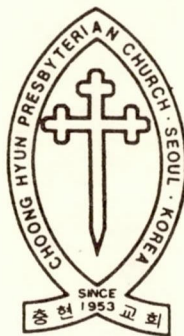
\* 장소 : 도고 로얄 관광 호텔

## 교회교육 연구위원회





# 교회학교 교재 편찬을 위한 집필자 워크숍 교재



\* 일시 : 1991.8.12(월) - 13(화)

\* 장소 : 도고 로얄 관광 호텔

## 교회교육 연구위원회





## 진행 시간표

| 시 간     | 8월 12일 (월)                 | 8월 13일 (화)                 |
|---------|----------------------------|----------------------------|
| 07:00 - |                            |                            |
| 08:00 - |                            | 아 침 식 사                    |
| 09:00 - |                            | WORKSHOP III<br>(공과 모델 작성) |
| 10:00 - |                            |                            |
| 11:00 - |                            | 종 합 평 가 및 토 의              |
| 12:00 - | 점 심 식 사                    | 점 심 식 사                    |
| 13:00 - | 교회 출발 ⇒                    | 도고 출발 ⇒                    |
| 14:00 - | 도고 도착                      | 교회 도착                      |
| 15:00 - | 개회 예배 및 진행 안내              |                            |
| 16:00 - | 정 리 및 휴 식                  |                            |
| 17:00 - | WORKSHOP I<br>(기존 공과 분석)   |                            |
| 18:00 - | 저 녁 식 사                    |                            |
| 19:00 - |                            |                            |
| 20:00 - | WORKSHOP II<br>(공과 집필 방법론) |                            |
| 21:00 - |                            |                            |
| 22:00 - | 교 제 및 친 교 (취 침)            |                            |





## 1 장 효과적인 성서 학습

1. 성서 학습 교안 작성의 실제
2. 무엇을 가르칠까?(개념)
3.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목표)
  4. 주의 집중(도입)
5. 목적있는 성경 공부(전개)
6. 나에게 주는 의미(결론)
7. 반응 격려와 실천(적용)
8. 교사에 의한 후속 과정(평가)
9. 분반 공부를 즐겁게 하려면



# 1. 성서학습 교안 작성의 실제

여행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관광 팸플렛과 지도를 살펴보고, 목적지 및 가는 도중에 구경하고 싶은 곳을 미리 생각해 둘 것이다. 계획없이 오랜 여행을 향해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들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실이 오늘의 교회학교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 그것은 성서 학습을 위한 계획이다. 성서 학습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보내려면 교사는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르침의 효과는 우리가 세운 계획과 연구에 따를 것이며, 교사의 교수 능력의 발전과 만족감도 이 교수-학습 교안 작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겠다. 뿐만 아니라, 이 학습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이 학습 원리에 따라서 질서있게 계획하면 성령께서 학생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다.

## •배움은 변화다 •

학생의 요구, 관심  
으로부터 시작



성경은 그의 요구와 관심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나? 어떤 중심이 되는 개념을 전하고 있습니까?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인도한다.

## •생활을 변화시키는 성서 학습을 하려면 •

|           |              |              |                                |
|-----------|--------------|--------------|--------------------------------|
| <b>지식</b> | 진리를 이해하고     | <b>목표 설정</b> | 1.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간결하고            |
| <b>느낌</b> | 마음속 깊이 느껴야만  |              | 2. 성취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이고            |
| <b>행함</b> | 실천할 가능성이 있다. |              | 3.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개인적이어야 한다. |

## 중심이 되는 개념과 목표 설정

교안 작성을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가르칠까?”와 “학생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교과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때로 너무 많아 한 수업 시간에 다 가르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기 반 학생의 요구와 성경

의 내용에 따라 전달할 중심이 되는 개념을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성경에 기초된 개념을 통해서 학생이 어떻게 변하기를 기대하는지를 생각하고, 학생의 행위를 위한 교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에 대답하는 것이다. 그 과정들은 다음과 같다.

중심이 되는 개념과 목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    | 중심 개념                                 | 목 표                                    |
|----|---------------------------------------|----------------------------------------|
| 지식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과 개인 관계를 맺으셨다.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신 세 가지 방법을 기록할 수 있다. |
| 느낌 |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          |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
| 행함 |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그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신다.       | 예수님을 따르도록 결정할 수 있다.                    |

## 주의 집중(도입)

학습은 흥미에 크게 좌우되므로 학생에게 하는 첫째 도입의 말은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난 주일 무엇을 공부했니?” 또는 “오늘의 제목은…”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 요구, 문제, 흥미와 관계없기 때문에 학생의 반응은 별로 높지 못하다. 보다 학생이 잘 아는 흥미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르는 것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다음의 원리에 따라 이끄는 말을 계획해 보자.

- 1) 학생의 일상 생활과 관계있는 것(집, 학교의 생활, 취미, 고민거리 등).
- 2) 학생이 공부할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것.
- 3) 성서 학습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될 수 있는 것.
- 4)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다양성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

## 목적있는 성경 공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교과서는 공과책이 아니고 성경이다. 그러므로 매 성서 학습 시간에 학생이 직접 성경책을 다루고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글씨를 익숙하게 읽을 수 없는 학생이라도 적어도 한 요절을 듣고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 어린이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있게 성경을 읽도록 잘 소개하여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5-51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교사가 성경을 펴서 들고 “예수님이 사귀 친구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을 기록해 보세요”라고 하면 학생이 목적있게 읽거나 들을 수 있다.

내용, 시간, 학생의 능력과 흥미, 교사의 능력과 경험, 장소 그리고 목표와 내용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1) 질문
- 2) 토의 및 회화
- 3) 창의적 글짓기 : 시, 작문, 연극
- 4) 창의적 활동 : 그림 그리기, 벽화 그리기, 스크랩북 만들기
- 5) 극적 활동 : 역할극, 극적 놀이, 연주
- 6) 지도와 연대표
- 7) 연구
- 8) 봉사 사업 계획

## 나에게 주는 의미(결론)

교사가 결론을 내려 주는 대신에 중심이 되는 기독교적 진리나 개념을 학생이 요약하도록 인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교사만 이야기하면 학생이 파악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학생에게 자기의 말로 그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학생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교사가 파악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1) 질문(예 :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 사귀고 싶어했을까요?)
- 2) 활동 발표
- 3) 학생의 재설명
- 4) 시각 자료 사용
- 5) 토의
- 6) 글짓기

## 반응 격려와 실천(적용)

마지막 단계는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생이 배운바 진리를 일상 생활에 옮기게 하려면 각 학생이 자기의 생활, 문제, 마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지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 1) 감정을 느끼도록 지도할 것 : 예화, 역할극, 그림 감상, 질문 등의 방법 사용
- 2) 실천하기 위한 실제적 계획을 세우도록 할 것. 첫째, 학생 스스로 이 진리가 지금 여기서 나에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도록 인도할 것. 둘째, “내가 이번 주일 이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교실을 떠나면서 생각하도록 지도할 것.
- 3) 헌신 : 구체적인 결단, 실제적인 계획.

## 교사에 의한 후속 과정(평가)

교사는 평가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학습 시간이 끝난 후 바로 평가하는 것이 제일 좋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1) 목표에 도달했는가?
- 2) 미비한 점은 무엇인가?
- 3) 학생의 반응에 대한 관찰
- 4) 학생에게 개인적 연락(숙제, 결석한 학생, 생일 맞이한 학생 등)
- 5) 학생이 이해하지 않은 것을 다음 시간에 다시 강조할 것인가?
- 6) 언제 학생의 주의 집중이 가장 산만했는가? 그 이유는?
- 7) 언제 학생이 제일 흥미있게 공부했나? 그 이유는?

## 정리해 봅시다

주일마다 교회학교 교사에게 주어지는 귀한 기회의 성서학습 시간을 어떻게 효과있게 진행할까의 질문은 모든 교사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아울러 성서 학습 시간을 위한 교수 학습안을 작성할 때 고려되어야 할 주안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계획될 때에 성서학습 시간을 효과있게 보낼 수 있을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이상의 질문을 돕기 위해 성서학습 시간의 진행상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원리들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리고 다음장에서부터는 이 원리들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하나씩을 따로 떼어내어 집중적으로 연구해보려고 한다. 이 원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원리를 따른다면 효과적인 성서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2. 무엇을 가르칠까? (개념)

가르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을 가르칠까”라는 문제이다. 다행스럽게도 교회에는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공과책’이라는 것이 가르칠 내용을 주고 있다. 이 공과책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어떤 요구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집필된 것이므로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가끔 지도자들은 공과책을 가르치지 말고 공과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을 한다. 그들은 공과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안 작성이라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교안 작성을 위하여는 이만저만 많은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내용을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이끌어가서 어떻게 어디서 끝낼까의 일차적인 요구로부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방법은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가능한 것인가? 주어진 시간내에 다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진행할 때 과연 내가 맡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의 세계는 어떤가? 이렇게 학습한 후에 과연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 등등 수많은 고려를 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실 교육 방법, 피교육자의 심리 상태, 경험의 세계, 이러한 것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들이다. 가르칠 때에 정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무엇을 가르칠까?”의 질문에 대한 시너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좋은 시너가 주인을 더 돋보이게 하듯 좋은 방법을 사용할 때 무엇을 가르칠까의 문제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을 가르칠까?”라는 말을 분명하고 쉽게 풀어본다면 “어떤 내용 중에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가르치냐”의 문제이다.

공과책은 전국의 천차만별한 교사를 대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의 내용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개념을 함축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목적 달성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주어진 내용 중에서 나름대로의 적용 가능한 개념을 추출하여 주어진 목적 범위 안에서 새 목적 설정을 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이것은 이상적인 교사가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20~25분 동안의 성서연구 시간에 한가지 개념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념에 따라서 공과 교수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이제 어떤 개념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목적과 공과 진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 개념이란?

개념에 대하여 김재은씨는 “개념이란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으로 항구적으로 수정과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다시 말하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다”라고 설명하여 주었다. 사전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개략적인 뜻이나 내용, 여러 관념속에서 공통적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해서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공과진행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란 말은 그 내용을 특징지우는 대표적이고 요소적인 뜻이 더 강하다.

## 개념 추출의 단계

중심 개념을 한눈에 잡아내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미 어떤 중심 개념을 가지고 집필된 교재이기 때문에 교사의 상황에 맞는 개념을 다시 발굴하는 일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는 하여야 한다. 우선은 교재 집필자가 의도한 중심 개념을 찾아내는 일을 하여야 한다. 이 일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차례를 지켜야 한다.

1) 그 과가 속하여 있는 단원 해설을 읽고 단원 전체를 읽는다. “말씀과 삶 II” 커리큘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과가 독립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단원 별로 집필되었다는 점이다. 매 과가 하나의 두드러진 목적을 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한 단원이 깊이있게 주려고 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 두 과가 합하여 하나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단원의 전체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번 과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2) 단원과 해당 과에서 제시하는 성경 본문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공과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는 성경책을

연구하는 것이다. 각 교사도 성경책으로부터 개인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읽어야 한다.

3) 명상하여야 한다. 며칠동안 명상하면(버스 안에서, 잠시 쉬는 틈을 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뜻을 알게 되기 마련이다.

4) 주일 저녁에 교수 준비를 시작한다. 공부를 단원별로 하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많은 시간을 요한다. 그러므로 주일 저녁에는 그 다음 주일에 가르쳐야 할 단원과 해당과를 한번 정도 읽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 개념 추출 때 유의점

1) 이미 주어진 교과 과정의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중·고등부의 교사가 범하기 쉬운 오류 가운데 교사가 나름대로 유사한 개념을 만들어 교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개념은 주어진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2) 가르칠 대상들의 상태에 적당하여야 한다. 상태에 적당하다는 말 역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구성원들에게 맞는 것이어야 한다.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있는 학급에서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 개념이 되면 안 된다. 둘째, 학생들이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생활 상황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는데 그들의 경험에서(지식적, 육체적) 이해 가능한 것들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양을 치는 목자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목자가 어떤 자세로 양을 다스리는지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다. 목자는 아주 양을 사랑한다는 설명은 지식으로는 합리적으로 부합되나 그것이 그들의 심중에는 호소가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려는 것은 분명히 목자 자체가 아니라 목자가 양을 대하는 자세이다. 이럴 때는 차라리 다른 예를 들어서 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말이다.

3) 하나의 개념만 다루고 다른 중요한 개념들이 나올 때는 다른 곳에 메모하였다가 다른 기회에 공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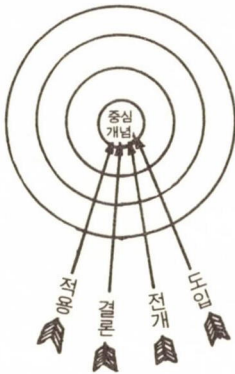
### 개념과 교수-학습 진행

1) 중심 개념과 목표 설정. 이것은 내가 이것을 가르치면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실현하려고 하는 가정이다. 즉 무엇을 알고, 느끼고,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개념과 목표 설정은 긴밀한 관계이다. 이것은 투망을 던져서 걸릴 고기는 걸려라 하는 식이 아니라 한 마리의 고기를 겨누어서 던지는 작살과도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2) 중심 개념과 도입. 도입이라 하면 들어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말을 말한다. 흔히 우리는 도입에서 한 주간 동안의 인사말을 나누어 왔다. 인사말을 나누다가 “오늘은 …에 대하여 공부하여 봅시다.”하고 들어가곤 했다. 또 “지난 주일 무엇을 공부하였는가?” “오늘의 제목은?” 하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도입은 반드시 성서학습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적인 것은 전개(본론) 내용이 다 결정된 후에(준비된 후에) 이 개념을 암시하는 말이나 활동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3) 중심 개념과 전개. 전개는 중심되는 개념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단계이다. 중심되는 개념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들은 생략하거나 급하게 지나가도 좋을 것이다.

4) 중심 개념과 결론. 도입에서 암시되었던 개념이 서서히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이 전개라면 결론은 암시되었던 것의 분명한 드러남이다. 이곳에서는 그날의 교수의 목표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 교수-학습 진행의 실례

예로써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눅 10:30-37)를 들어 보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의 중심되는 개념은 두말할 나위없이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개의 개념이 있다. 이웃이라는 개념과 사랑이라는 개념이다. 오늘은 우선 사랑이라는 개념에 두고 이야기해 보자.

이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문제이다. 이 막연한 사랑의 개념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가르친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한 이유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있었다. 어느날 유대인이 여행중에 강도를 만났다. 같은 지방 사람이며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레위인,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와주었다.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자.” 이 이야기에서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제 이 비유 속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 개념을 뽑아보고 이 개념에 따라서 교안을 설명하며 진행하여 보려 한다.

### 개념 1. 초월적인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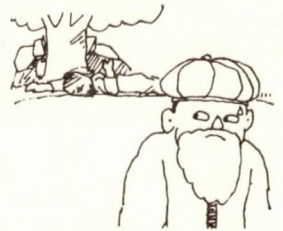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미워하는 사이로서 특히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유대인의 천대를 받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도와주었다. 여기에 핵심을 두어 진행해 보자.

도입 :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왜 그 사람이 싫은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가?를 질문하여 싫어하는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기를 원치 않는 자신들의 마음을 확인시킨다.

전개 :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미워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진행한다.

결론 : 사랑이란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적용 : 싸운 친구에게 먼저 편지쓰기.



### 개념 2. 사랑은 내 것을 희생하는 것

사마리아인은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줌으로 표현된 사랑에 핵심을 두어 진행해 보자.

도입 : 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 그것을 마련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가?

전개 : 개념1에서 다룬 것까지 하고 계속해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위하여 무엇을 주었는지 성경에서 찾아본다(시간, 돈, 기름, 나귀...). 그가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돈, 기름, 나귀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각각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 상상해보기, 발표하기.

결론 : 사랑은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완전하게 표현된다.

적용 : 우리 주변에서 잊혀진 이웃들을 생각해내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줄 수 있는 일을 말하고 한가지씩 실천하기.



### 개념 3. 행함이 없는 사랑

개념1·2는 사마리아인에게 조명을 맞추었다. 이제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조명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도입 : 도와주어야 하는 줄 분명히 알면서 도와주지 않은 경험이 있는가? 왜 그랬는가? 만약 그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욕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전개 : 유대 사회에서의 레위인과 제사장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이들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곁을 그냥 지나간 것까지만 이야기한다. 이들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를 당시 상황을 생각하며 상상해서 답하도록 한다. 옹고 그른 답이 있을 수 없고 모두 가능한 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결론 : 그들 나름대로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사랑함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다.

적용 : 핑계를 대며 사랑하여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한다.

#### 개념 4. 참 이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가 참 이웃인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진행해 보자.

도입 : 누구와 친한가? 왜 친한가? 그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는 서로 좋아야 이웃이 된다. 서로 좋지 않았으나 이웃이 된 이야기.

전개 :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개시킨다.

결론 : 누구와 누가 참 이웃인가? 이들이 이웃이 되는데는 어떤 힘이 작용하였는가? 이들이 이웃이 됨으로 서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인가? 손해와 이익의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손해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할 이웃인가? 도움을 주어야 할 이웃인가?

적용 :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서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학급회의 하기.

####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한 본문을 가지고 학습 가능한 4가지 개념을 추출하고, 한가지 개념만으로 도입, 전개, 결론, 적용이 일관된 약식 교안을 만들어보았다.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4개의 교안의 도입이 모두 다르고 결론, 적용, 활동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때로는 전개 부분에서 이야기 중 삭제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점이다.

모든 것을 한번에 주입시킬 수는 없다. 깨달을 수는 더더욱 없다. 적당한 한가지 개념을 선택하여 그것에 집중시켜 교안 준비를 하는 훈련은 교사 자신의 영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3.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목표)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가르침의 목표는 에베소서 4:13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하자면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각 학생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를 빨리,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 달, 몇 년, 아니 일평생 걸릴 것이다. 이러한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은 목표를 몇 단계로 나누어 가르친다. 교육적인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가르침에 임하는 교사들의 자세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 몇 교사가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는 바를 유의해 보자. 과연 참된 목표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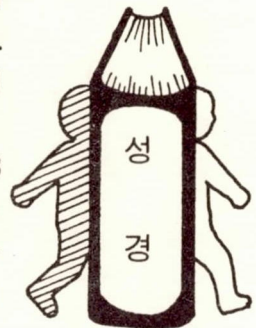
성경 지식: “나는 우리의 학생들이 많은 성경의 사실을 배우기 원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 이 교사는 학생 자체를 무시하고 성령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학생의 흥미: “나는 이 성경이 학생에게 가장 흥미로운 책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가르치겠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성경의 사실의 개요를 암송: “이 성경 개요가 간결하고 잘 표현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인데, 학생이 이것을 다 암송한다면 그에게 좋은 기초가 될 것이다.” 학생은 자기 스스로 진리를 발견해야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학생이 여러 요절과 성경 사실을 암송할 수 있어도 그의 생활에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활의 변화: “나는 나의 반 학생에 대해 염려하며 기도한다. 나는 2, 3년 동안 같은 학생을 가르쳐 왔지만 그의 생활에 아무런 변화를 볼 수 없다.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니 때로 난 너무나 실망이 된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변화시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중심이 되는 목적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나는 내 시간을 대부분 기도함으로 보내겠다. 참된



교사는 성령이니까.” 모든 교사는 성령의 도움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에만 의존하고 우리의 충분한 준비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 1:29).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것이다.

내용의 양 : “이 공과 안에 좋은 내용이 아주 많다. 나의 학생이 이것을 다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짧은 시간내에 취급할 수 있을까.” 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내용을 배우고,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가는 내용의 양보다 더 중요하다.

### 열매있는 가르침

변화를 시키는 교육을 하려면 이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에 너무 기울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요소가 핵심임을 인정하고 다른 요소가 이 목적에 어떤 역할을 하며 무엇을 제공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많은 교사들이 내용을 전하기만 하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사가 열심히 가르쳐도 학생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잘 가르쳤다고 말할 수 없다. 사실은 가르치는 일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야고보서 4:17 말씀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성경의 진리를 전할 때 학생으로 실천할 때까지 지도하지 않으면 학생이 더 큰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르침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학생이 얼마나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다.

### 목표 설정

열매 맺는 성서 학습을 원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진리를 알고, 의미를 느낀 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변화는 전인의 변화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식, 마음, 행위인 전인이 배우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어떤 성경 사실을 배워서 새로운 생각만 갖게 된다고 더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생활에 옮겨야 한다. 또한 느낌은 배움의 시작이다. 느낌이 없으면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느낀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다음의 요점을 보면 3가지가 강조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시편 119:27, 73    KNOW (아는 것)

시편 110:16, 24    FEEL (느끼는 것)

야고보서 4:17       DO (행하는 것)

따라서 목표는 다음의 세 단계를 염두에 두고 설정되어야 한다.

- 1) 교사인 당신은 학생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 2) 교사인 당신은 학생이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는가?
- 3) 교사인 당신은 학생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리가 공과를 준비할 때 우리는 매 과에서 이 세 가지 목표를 다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의 공과 시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과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막연한 적용이나 권고로 끝내는 데에 만족해 버릴 수밖에 없다. 핀들리 에지(Findley B. Edge)는 그의 책 「효과적인 성서교수법」(Teaching for Results)에서 이 점에 대해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는 위의 단계를 지적, 감화적, 행동 반응 목표로 각각 정의한다. 또한 그는 교사들에게 매과에서 이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이며, 그 중에서 으뜸되는 목표 하나만을 취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 교사가 지식에 관한 목표를 원한다면, 지적인 목표가 으뜸이 될 수 있고, 가르치는데서 결정적인 요소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교사가 행동 반응을 요구한다면, 행동 반응이 반드시 과에서 으뜸이 되어야 하고, 가르침 후에 기대되는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실례를 통해서 과 목표에서 보여주는 차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주일의 공과가 바울의 첫번째 전도 여행에 관한 것이라고 할 때 각 목표들은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

1) 지적인 목표 : 학생들을 바울의 첫번째 전도 여행에서의 중요한 사실들을 배우도록 인도하는 것.

2) 감화적인 목표 : 학생들이 한층 더 선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3) 행동 반응의 목표 : 도시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선교 계획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것.

만일 교사가 이 세 분야에서 어느 한가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면 지식, 감화, 혹은 행동 반응에 대한 결과를 확보하는데 더 좋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시간에 세 가지 목적을 한데 뭉쳐 세 가지를 다 혼합시킬 때 교사에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교사들이 실제로 목표를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좋은 목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목표는 기억할 수 있을만큼 간결해야 한다. 교사가 목표를 설명할 때 거의가 너무 길고, 복잡하고 또 어렵다. 목표는 학생이 배우고 행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교사의 진술이다. 만일 그 진술이 너무 길어서 교사가 기억할 수 없다면, 교사는 어떻게 학생이 그것을 실천하도록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목표는 기억하기 좋게 간결해야 하며, 또 교사는 그 목표를 어려움 없이 인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목표는 기록할 수 있을만큼 명확해야 한다. 교사들이 목표를 설명해 주려고 할 때 당하는 어려움은 목표를 분명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목표를 기록해 보기 전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목표가 기록할 수 있을만큼 분명하지 못하다면 좋은 목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3)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많은 교사들의 결정 중의 하나가 목표의 내용이 너무나 모호하고 또 너무나 막연하다는 것이다. 교사는 주일에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그 목표는 한정된 시간내에 충분히 성취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우리반 학생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학생들이 그것을 주간중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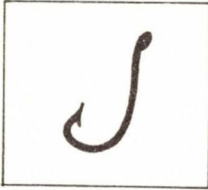
교사들은 다음 주일 공과의 성경 본문과 내용을 공부한 후에 위에 제시한 강조점과 기준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르친 후 이 목표에 따라 평가해 보자.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가? 이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만 열매를 맺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목표의 실례들

|          | 유치부                                          | 초등부                                         | 소년부                 | 중등부                 |
|----------|----------------------------------------------|---------------------------------------------|---------------------|---------------------|
| 제목       | 용서하라 하세요                                     | 먼저 대접하라                                     | 반석위에 지어라            | 빌라도 앞에서             |
| 본문       | 마 18:21-35                                   | 마 25:31-46                                  | 마 7:24-29           | 마 27:1-2, 11-26     |
| 중심<br>개념 | 하나님이 우리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이 좋게 |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먼저 돕고, 좋은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한다. |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 |

|    | 지낸다.                                                                                                                                               | 것이다.                                                                                                |                                                                                                                    |                                                                                                                                  |
|----|----------------------------------------------------------------------------------------------------------------------------------------------------|-----------------------------------------------------------------------------------------------------|--------------------------------------------------------------------------------------------------------------------|----------------------------------------------------------------------------------------------------------------------------------|
| 목표 | <p>1.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친구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p> <p>2. 친구를 용서한 나의 마음이 기쁜 것을 느끼게 된다.</p> <p>3. 친구가 화나게 하더라도 “괜찮아, 용서해줄게”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p> | <p>1. 좋은 것을 친구에게 양보하려고 한다.</p> <p>2.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부지런히 찾는다.</p> <p>3.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먼저 돕는 기쁨을 누린다.</p> | <p>1. 집짓는 비유의 의미를 안다.</p> <p>2. 성경 읽기와 실천하기 점검표를 통해 자신의 태도를 점검한다.</p> <p>3.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실천하기 위한 하루 시간표를 작성한다.</p> | <p>1.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안다.</p> <p>2. 정말로 재판정에 서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다.</p> <p>3.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할 일을 계획한다.</p> |

## 4. 주의 집중 (도입)



도입의 단계는 교사와 학생이 반에서 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이다.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공과 공부를 하기 위하여 이동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교사는 오늘의 성서 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어떻게 집중시키고 이끌어 나갈지를 계획하고 있어야 한다. 의례적으로 출석을 부르고 난 뒤 공과책을 펴게 해서 제목, 요점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학생들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펴서 읽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다.

로렌스 리차드(L. Richards)는 그의 책「창조적인 성서교수법」에서 이 단계를 낚시 바늘에 비유했다. 어부가 낚시 바늘로 강에 있는 고기를 배로 끌어들이듯이, 이것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끌어들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낚시 바늘(주의 집중)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를 끌게 한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라.

둘째, 목표를 둔다. 이 공과가 나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셋째,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로 들어가는 다리가 된다. 교사가 관심을 사로 잡고 목표를 제시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 공부로 들어가게 했을 때, 훌륭하게 출발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학습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 학생의 요구로부터 시작하자

주일마다 교회학교에 나와 교사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질문을 갖고 있다. 그 질문과 문제의 해결책은 교사가 갖고 있는 성경 안에 있으나 성서 학습이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문제의 해결을 발견하지 못한채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학생들이 성서 학습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갖는 인상은 “성경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아. 성경은 나와는 상관



이 없는 책이야”라는 것이 되고 만다.

학습은 학생의 동기와 느낌에 크게 좌우된다. 배우고 싶어하는 동기를 주지 못하거나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학생은 잘 배우지 못한다.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형편에서 학생이 보고 느끼는대로 보고 느껴야 하며 학생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동기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이 내적인 것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

때로 학생들은 자기들이 가져야 하는 실제 요구(real need)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경우 교사는 학생이 현재 느끼고 있는 요구(felt need)로 부터 실제 요구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친구가 없어 외로운 어린이가 친구를 필요로 하는 요구(느끼고 있는 요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가 되신다는 요구(실제로 가져야 할 요구)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교사는 먼저 그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학생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 한다.

학생이 두려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게 될 때 학습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질 때 학습은 잘 이루어지고 학생 자신이 점점 향상되어질 수 있다. 각기의 학생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한다. 이때 교사는, 하나님께서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발견할 요구를 그들이 깊이 느낄 때 비로소 가르칠 계기가 생긴 것을 알고, 교사는 그 기회를 포착하여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적인 요구 뿐 아니라 전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

성서 학습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교사들은 “오늘 공부할 곳은 성경 ...인데”라고 한다. 이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잘 집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똑같은 방법에 그들은 싫증이 났고 그 자신과 성경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렇게 시작하기보다 교사는 학생의 요구, 즉 변화해야 할 위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으로 그 요구에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교사는 그 일에 열중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이 알아야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느끼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학생이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관심을 기울이도록 인도한다.
- 2) 그 요구를 충족해 줄 성경 말씀을 제시해야 한다.

| 인간의 일반요구  | 나의반학생의 요구 | 가능한 본문말씀         |
|-----------|-----------|------------------|
| 건 강, 소속감  | _____     | 마가 2:4(친구가       |
| 안 전, 인 정  | _____     | 요구중 하나에 한 친구를 인도 |
| 사 랑, 자 유  | _____     | _____            |
| 자존심, 자아충족 | _____     | _____            |
| 새로운 경험    | _____     | _____            |

###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도입의 단계가 그날의 성서 학습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이 자연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어야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보다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행해져야 한다. 또한 학생의 요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그날의 학습 내용과 별개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날의 중심 개념을 암시 해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켜서 성경을 펴서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 들을 찾아보면서 그 실례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보여주기 후 토론하기. 주의가 산만한 학생들에게 그날의 학습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그림, 사진 등을 제시함으로써,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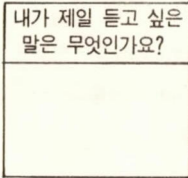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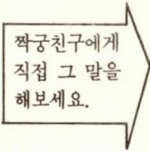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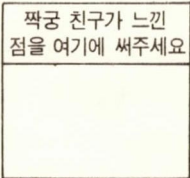
2) 학생이 개념을 정의한 것을 읽고 질문하기. 미리 한주간 전에 배울 내용의 중심되는 개념을 선정해 주고, 그 개념에 대해서 연구해 오도록 하여, 학생 스스로 발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듣기. 교사가 그날의 내용을 함축해서 나타내줄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 하거나, 예화를 찾아서 구연하거나, 구연에 자신이 없을 경우 미리 녹음기에 녹음을 해 와서 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

4)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의견 말하기. 주제를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나는대로 말하게 하는 브레인스토밍법을 사용할 수 있다.

5) 교사가 최근에 일어난 사건 제시하기. 최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쉽게 교사의 말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학교 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나 사회에서 일어났던, 학생과 관련있는 일들을 상기 시킴으로써 그날의 수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주의 집중의 실례들

|                                      |                                                                                                                                                                                                                                                                                                                                                                                                           |   |
|--------------------------------------|-----------------------------------------------------------------------------------------------------------------------------------------------------------------------------------------------------------------------------------------------------------------------------------------------------------------------------------------------------------------------------------------------------------|---|
| 제목과 본문                               | 도                                                                                                                                                                                                                                                                                                                                                                                                         | 입 |
| 유치부<br>용서하라 하세요<br>마 18:21-25        | 이 친구가 왜 화가 났을까?<br><br>화가났던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br>누가 화나게 했나요?<br>나를 화나게 만든 친구에게 어떻게 했나요?                                                                                                                                                                                                                                       |   |
| 초등부<br>먼저 대접하라<br>마 25:31-46         | 짜궁 친구와 직접 경험해 봅시다.<br><div>내가 제일 듣고 싶은<br/>말은 무엇인가요?<br/></div> <div>짜궁친구에게<br/>직접 그 말을<br/>해보세요.<br/></div> <div>짜궁 친구가 느낀<br/>점을 여기에 써주세요<br/></div> |   |
| 소년부<br>반석 위에 지어라<br>마 7:24-29        | <br>1) 누가 집을 더 빨리 지었을까요?<br>2)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집이 흔들려요.<br>어느 집에 문제가 생겼을까요?<br>3)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   |
| 중등부<br>빌라도 앞에서<br>마 27:1-2,<br>11-26 |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br><br>1)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br>2) 어떠한 사람이 재판장 앞에 서게 되나요?<br>3) 재판장의 역할은 무엇 일까요?<br>그런데 예수님도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   |



## 5. 목적있는 성경 공부(전개)



전단계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였다고 하자. 이제 학생들은 오늘 공과에서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호기심 속에서 교사의 다음 단계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때 교사가 혼자서 주입식 강의로만 일관한다면, 그들의 기대는 반감되고 또다시 주의가 산만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을 학생과 함께 연구하자.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자.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중심되는 개념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으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 학생들을 참여시키자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교사는 이 단계에서 공부할 성경 귀절의 의미를 명백히 밝혀주어야 한다. 가르치고 배우는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지식을 얻도록, 그리고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참여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만을 사용하고 다른 것은 삭제해야 한다. 교사들은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독교의 진리를 모두 전해주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날에 가르칠 중심적인 내용만 가르치고, 그외의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자.

또한 공과의 진행 과정에서는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반드시 권장해야 한다. 학생이 스스로 성경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이 스스로 읽고 찾도록 교사가 이끌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가 미리 준비한 것을 전달하기만 하면 학생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학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데 필요한 도구를 준비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많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모든 학생이 웅성거리며 같이 토의하고 연구하는 것과 같은 참여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실

을 드러내며 가르칠 때 사용되는 보고서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다. 혹은 교사 중심의 방법을 쓸 수 있다. 좋은 강의란 가장 빠른 방법으로 내용을 다루고 핵심을 잡게 하는 것이다. 혹은 도표나 시청각 재료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사용되든지, 이 단계에서 목적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일단 주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성경은 어른들의 손에 의해 쓰여진 책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배우는 자들의 수준에서 가장 쉽게 파악하고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각 방법은 주일마다 하나의 주요한 성경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그날의 내용, 시간, 학생의 능력과 흥미, 교사의 능력과 경험, 장소 등을 고려해서 알맞은 성경 연구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성화 또는 연속화를 보면서 가르칠 내용 질문하기. 성화 또는 연속 그림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게 하고, 그림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해 본다.

2) 중심 개념을 중심으로 한 성경 이야기 들려주기. 그날에 배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구성하거나 공과에 제시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고, 학생들이 이야기 속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에 대답하기.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을 찾아 읽게 한 후 그 내용을 질문한다. 이때 질문의 내용은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의 형식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게 되는 형태의 질문을 피하도록 하자.

4)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여 이야기하고 학생이 재연하도록 하기. 유판이나 화극, 다이오라마 등의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공과 내용을 이야기해준 후에, 학생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말로 재연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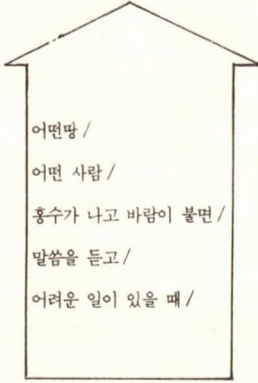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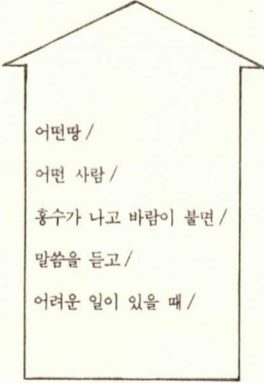
5) 설치된 학습 센터 선택하기. 때때로 학습의 형태를 변형시켜주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줄 수 있다. 반별 학습만 하기보다는, 각부별로 학습 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자신이 원하는 센터에 가서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전개 단계를 위해 학습 센터를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는 이야기 센터, 그림 센터, 토의 센터, 인형극 센터 등이 있을 수 있다.



## 목적 있는 성경 공부의 실례들

|             | 제목과 본문                 | 전 개                                                                                                                                                                                                                                                                                                                                                                                                                                             |
|-------------|------------------------|-------------------------------------------------------------------------------------------------------------------------------------------------------------------------------------------------------------------------------------------------------------------------------------------------------------------------------------------------------------------------------------------------------------------------------------------------|
| 유<br>치<br>부 | 용서하라 하세요<br>마 18:21-35 | <p>성경에도 이렇게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p> <p>“빨리 내가 빌려준 돈을 가지고 오너라.”</p> <p>“임금님 용서해주세요.<br/>아직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p> <p>“좋다 내가 네 돈을<br/>안 받기로 하겠다.”</p> <p>“자네 내 돈 좀 갚겠나!”</p> <p>“안돼”</p> <p>“조금만 기다려주세요.”</p> <p>“뭐라고? 내가 그 많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br/>했는데 너는 친구가 빌려준 적은 돈을 용서해 주지<br/>않고 감옥에 넣었다고?”</p> <p>그림 ②~⑦을 색칠하여 오린 후 손가락 인형 또는 막대<br/>인형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로 들려준다.</p> <p>뒷면</p> <p>테일로 붙인다</p> <p>손가락 굽기</p> <p>손가락 인형</p> <p>나무젓가락<br/>또는 이쑤시게</p> <p>막대인형</p> |
| 초<br>등<br>부 | 먼저 대접하라<br>마 25:31-46  | <p>선생님! 막대인형을 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br/>(도움:어린이 교재 pp.103-108)</p> <p>가난한 구두<br/>수선공 아저씨</p> <p>쓰러진<br/>혈벙은 젊은이</p> <p>스카치<br/>테일</p> <p>구두(앞)</p> <p>구두(뒤)</p> <p>소매<br/>소독저</p> <p>삼두마차</p> <p>천사</p> <p>※ 집에서 두꺼운 종이를 풀로 붙여서 가위로 오려내고 막대기를<br/>붙여 막대인형을 만드세요. 그리고 동생에게, 친구에게 오늘<br/>배운 말씀을 생각하며 들려주세요.</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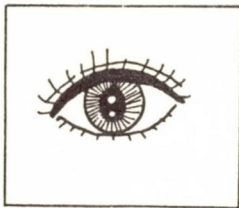


|             | 재목과 본문                        | 전 개                                                                                                                                                                                                                                                                                                                                                                                                                                                                                                                                                                                                                  |
|-------------|-------------------------------|----------------------------------------------------------------------------------------------------------------------------------------------------------------------------------------------------------------------------------------------------------------------------------------------------------------------------------------------------------------------------------------------------------------------------------------------------------------------------------------------------------------------------------------------------------------------------------------------------------------------|
| 소<br>년<br>부 | 반석위에 지어라<br>마 7:24- 29        | <p>본문말씀을 읽고 습속에 알맞은 내용을 적어 넣으세요.<br/>그리고 둘씩 짝지어 성경이야기를 서로 들려주세요.</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어떤땅 /<br/>어떤 사람 /<br/>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br/>말씀을 듣고 /<br/>어려운 일이 있을 때 /</p> <p>반석 위에 지은 집</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어떤땅 /<br/>어떤 사람 /<br/>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br/>말씀을 듣고 /<br/>어려운 일이 있을 때 /</p> <p>모래 위에 지은 집</p> </div> </div>       |
| 중<br>등<br>부 | 빌라도 앞에서<br>마 27:1-2,<br>11-26 | <p>예수님도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p> <p>1) 본문말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p> <p>(1)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사람들은? _____</p> <p>(2)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가 누구에게 넘겨 주었는가? _____</p> <p>(3) 총독(빌라도)이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예수님께 한 질문은? _____</p> <p>(4) 총독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_____</p> <p>(5)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나요? _____</p> <p>(6) 총독빌라도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_____</p> <p>2)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봅시다.</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1) 무엇하는 장면입니까?</p> <p>(2)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야만 했나요?</p> <p>(3)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p> </div> </div> |

## 6. 나에게 주는 의미 (결론)

이 단계는 공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중 교육에 대한 가르치심은 다음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20).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사의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키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사인 우리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생 자신이 그의 일상 생활에 배운 지식을 적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성경의 내용을 자신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성서 학습에서 결론의 단계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는 단계이다.

### 공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로렌스 리차드는 이 단계를 눈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와 실생활과의 관계를 무시하도록 인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단계는 공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성경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내가 무엇부터 시작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오늘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곳이다. 교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그날의 공과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때로는 토의를 통해서 그날의 학습에서 느낀 점을 토의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학생 자신이 성경 속의 인물이 되어 보는 역할극이나 극적인 활동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질문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학생들은 그날의 공부를 통해서 배운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체적인 성서 학습의 과정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의 단계에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결론 단계에서는 활동적인 방법보다는 전개 단계의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바를 보다 간략한 방법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 매단계마다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때 학생들은 전체적인 학습 과정에서 요구하는 중심 개념을 놓쳐버리고 활동 자체에 몰두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처음에 계획했던 중심 개념과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관성 있게 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학생들이 배운 진리가 나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견토록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1) 실제 상황 이야기 듣고 결론짓기. 교사가 성경 속의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구성해서 이야기해 준 뒤에 학생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2) 쓰는 활동들. 학생들이 직접 글을 지어보거나,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편지나 신문 기사를 써보게 해서 성경의 내용과 자신과의 관계를 스스로 느껴보도록 하자.

3) 극화 활동들. 역할극, 인형극, 무용, 판토마임, 연극 등의 극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 자신을 이해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4) 녹음하는 활동들. 녹음기를 사용하여 뉴스, 대사, 노래, 연극 등을 꾸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결론 단계를 유도해보자. 학생들이 그날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 공작 활동.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내용을 복습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의미에서 성경에서 배운 것을 축소판 모형, 풀라쥬, 몽파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 만들어 보거나 자신의 것으로 변형시켜보도록 학생들을 이끌어보자.

6) 토의하기. 우리의 현실 여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토의 방법이다. 특별한 공간이나 재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자유스런 토론 속에서 교사는 목적인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결론의 실례들

|             | 제목과 본문                         | 결론                                                                                                                                                                                                                                                                                                                                                                                                                                                                                                                                                                                                                                                                                                                                                                                                                                                                           |
|-------------|--------------------------------|------------------------------------------------------------------------------------------------------------------------------------------------------------------------------------------------------------------------------------------------------------------------------------------------------------------------------------------------------------------------------------------------------------------------------------------------------------------------------------------------------------------------------------------------------------------------------------------------------------------------------------------------------------------------------------------------------------------------------------------------------------------------------------------------------------------------------------------------------------------------------|
| 유<br>치<br>부 | <p>용서하라 하셔요<br/>마 18:21-35</p> | <p>어떻게 되었을까요?<br/>(아래의 그림을 크게 그려 어린이에게 나누어준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아빠친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아빠</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임금님</p> </div> </div> <p>만약 아빠가 친구를 용서했다면 아빠 친구의 얼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임금님과 아빠의 얼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p> <p>어린이들과 표정을 함께 지어본 후 눈과 입을 그려서 그림을 완성한다. 나를 화나게 한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크레파스를 빌려간 철민이가 그만 크레파스를 부러뜨렸어요!</li> <li>•민정이가 공주인형을 빌려가서 자기 혼자만 놀려고 해요!</li> <li>•경민이가 자꾸 이 그림책이 자기 것이라요.</li> </ul> |
| 초<br>등<br>부 | <p>먼저 대접하라<br/>마 25:31-46</p>  | <p>본문말씀을 읽고 □□를 채우세요.</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양</p> </div> <div> <p>□여, 우리가 어느 때에 □의□□□것을 보고 공배하였으며 □□□□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가. 어느 때에 □□□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것을 보고 옷입혔나이가. 어느 때에 □□□ 것이나 □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가.</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start;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예수님</p> </div> <div> <p>내 □□□□중에 지극히 □□□□ 하나에게 한 것이 곧 □□ 한 것이니라.</p> </div> </div>                                                                                                                                   |

|                                                     |                                                                                                                                                                                                                                                                                                                                                                                                                                                                                                                                                                                                                                                                                                                                                                                                                                                                                                                                                                                                                                                                    |                |                  |             |          |               |                |             |           |                    |                    |                |                  |      |         |           |                 |
|-----------------------------------------------------|--------------------------------------------------------------------------------------------------------------------------------------------------------------------------------------------------------------------------------------------------------------------------------------------------------------------------------------------------------------------------------------------------------------------------------------------------------------------------------------------------------------------------------------------------------------------------------------------------------------------------------------------------------------------------------------------------------------------------------------------------------------------------------------------------------------------------------------------------------------------------------------------------------------------------------------------------------------------------------------------------------------------------------------------------------------------|----------------|------------------|-------------|----------|---------------|----------------|-------------|-----------|--------------------|--------------------|----------------|------------------|------|---------|-----------|-----------------|
|                                                     | <div data-bbox="464 225 606 323">  <p>염소</p> </div> <div data-bbox="464 343 606 460">  <p>예수님</p> </div> <p><input type="checkbox"/>여, 우리가 어느 때에 <input type="checkbox"/>의 <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것이나 <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것이나 <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되신 것이나 <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것이나 <input type="checkbox"/>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p> <p>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p> <p>·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언제 이런 대화를 하게 될까요?(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p> <p>· 예수님과 대화하는 양과 염소 중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양, 염소)</p> <p>· 양이 되고 싶은 친구가 해야 할 일을 적어봅시다.</p> |                |                  |             |          |               |                |             |           |                    |                    |                |                  |      |         |           |                 |
| <p>반석 위에 지어라<br/>마 7:24-29</p> <p>소<br/>년<br/>부</p> | <p>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점검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집을 짓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p> <p>• 성경책은 내가 아무 때나 읽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까?</p> <table border="0"> <tr> <td>항상 그렇다</td> <td>가끔 그렇다</td> <td>어쩌다, 한번 그렇다</td> <td>항상 안 그렇다</td> </tr> </table> <p>• 나의 성경책에는 먼지가 끼어있지 않습니까?</p> <table border="0"> <tr> <td>매일 읽어서 먼지가 없다</td> <td>가끔 읽을 때 먼지를 털다</td> <td>주일날만 먼지를 털다</td> <td>신경쓰지 않는다.</td> </tr> </table> <p>• 나는 매일 적어도 한절 이상의 성경을 읽습니까?</p> <table border="0"> <tr> <td>매일 한절 이상씩 읽고 생각한다.</td> <td>가끔 시간이 나면 한절씩 읽는다.</td> <td>선생님이 시킬 때만 읽는다</td> <td>일주일에만 한절 읽기가 힘들다</td> </tr> </table> <p>• 나는 적어도 하루에 한가지씩 착한 일을 합니까?</p> <table border="0"> <tr> <td>매일한다</td> <td>생각나면 한다</td> <td>어쩌다 한번 한다</td> <td>전혀 안한다. 기억이 없다.</td> </tr> </table>                                                                                                                                                                                                                                                                                                               | 항상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어쩌다, 한번 그렇다 | 항상 안 그렇다 | 매일 읽어서 먼지가 없다 | 가끔 읽을 때 먼지를 털다 | 주일날만 먼지를 털다 | 신경쓰지 않는다. | 매일 한절 이상씩 읽고 생각한다. | 가끔 시간이 나면 한절씩 읽는다. | 선생님이 시킬 때만 읽는다 | 일주일에만 한절 읽기가 힘들다 | 매일한다 | 생각나면 한다 | 어쩌다 한번 한다 | 전혀 안한다. 기억이 없다. |
| 항상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어쩌다, 한번 그렇다    | 항상 안 그렇다         |             |          |               |                |             |           |                    |                    |                |                  |      |         |           |                 |
| 매일 읽어서 먼지가 없다                                       | 가끔 읽을 때 먼지를 털다                                                                                                                                                                                                                                                                                                                                                                                                                                                                                                                                                                                                                                                                                                                                                                                                                                                                                                                                                                                                                                                     | 주일날만 먼지를 털다    | 신경쓰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매일 한절 이상씩 읽고 생각한다.                                  | 가끔 시간이 나면 한절씩 읽는다.                                                                                                                                                                                                                                                                                                                                                                                                                                                                                                                                                                                                                                                                                                                                                                                                                                                                                                                                                                                                                                                 | 선생님이 시킬 때만 읽는다 | 일주일에만 한절 읽기가 힘들다 |             |          |               |                |             |           |                    |                    |                |                  |      |         |           |                 |
| 매일한다                                                | 생각나면 한다                                                                                                                                                                                                                                                                                                                                                                                                                                                                                                                                                                                                                                                                                                                                                                                                                                                                                                                                                                                                                                                            | 어쩌다 한번 한다      | 전혀 안한다. 기억이 없다.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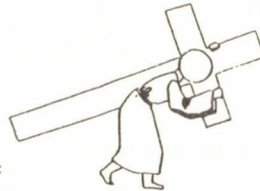
빌라도 앞에서  
마 27:1-21,  
11-26

1) 다음 ( )속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 )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 )하지 말라. 너희  
의 ( )하는 그 ( )으로 너희가 ( )을 받을  
것ियो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  
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1, 2).

2) 정말로 재판장 앞에 서야 하고,  
십자가에 못박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얼굴에 나의 사진이나 이름  
또는 그림을 그려 넣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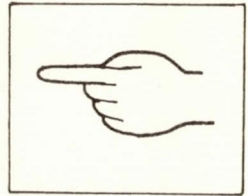


## 7. 반응 격려와 실천(적용)

진리를 안다고 해서 학생이 반드시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교사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실은 학생들이 진리를 알면 실천할 것이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의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교인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는 성서 학습 시간에 교사와 학생의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부터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 2:17).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을 통해 효과를 나타낸다. 이 단계는 손(획득)의 단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주사와 같아서 획득해서 지니기 전에는 아무 효과도 없다. 공과를 적용하는 것은 변화를 제안하는 것으로서, 교사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생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을 돕고 주간 중에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배움이 없는 가르침은 있을 수 없고, 반응이 없는 배움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공과도 그것이 만일 성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건전하고 실제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거나, 그것이 일상 생활의 성품이나 태도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이 그 공과를 배우고 난 뒤에 그것을 실천하게 하려면, 교사는 학생이 집, 학교, 놀이터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이 행동할 것을 결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가르침에 있어서의 성공은 학생이 그 배운 진리를 얼마나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다. 가르침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이 가질 행동에 대해 기대하고, 또 학생들도 기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르친 진리에 따라 한주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고, 한주일 후 다시 만났을 때 그 일을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토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일을 위해서 교사는 무엇보다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께서 학생들을 도와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아울러 각 학생과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지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제 올바른 적용과 그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위해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올바른 적용을 위한 제안.

1) 공과 진행에 있어서 적용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잠정적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2) 적용은 개개인의 필요와 공과 목표들에 비추어 배려깊게 계획되어야 한다.

3) 공과를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단순히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가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다루어야 한다. 즉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4) 적용은 반드시 감정을 뒤흔들고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솔깃하게 하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마음을 움직여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예화를 사용해서 호소를 하거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또한 잘못된 길을 따르는 위험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5) 적용은 학생들로부터 이끌어져야 한다.

6) 적용은 학생들의 나이와 그들의 영적인 수준과 수평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7) 적용은 공과 마지막 뿐만 아니라 공과 중에도 변행되는 것이 좋다.

8) 적용은 생활 속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생활 속에서 실천

레이 로우젤(Ray Rozell)은 그의 책 「교회학교 교수 요령」(Talks on Sunday School Teaching)에서 ‘행동으로의 이월’(Carryover Activity), 즉

이월된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월된 행동이란 학생들에게 공과 시간에 가르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습관을 갖게 해주기 위해 한 주간 동안 매일 할 일을 지시해 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기가 배운 것을 실천해 보지 않고는 결코 실제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적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인도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어 보려고 한다.

먼저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실례를 들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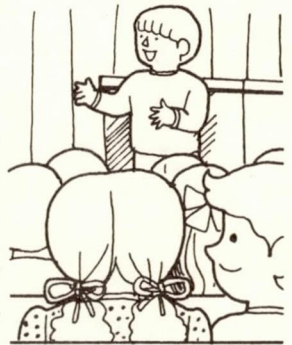
1) “예수님께서 감사함을 가르치신다”라는 공과를 마치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 주간 동안에 두 가지를 하도록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말을 하라 둘째,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려라.

2)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는 예수님”이라는 공과를 마치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 주간 동안에 자신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슬프게 할 만한 행동들을 찾아서 써보도록 한다.

3) “뻗어나가는 교회”라는 공과 후에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동네 혹은 도시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할 수 있다.

한주간이 지나고 다시 모여서 그 일들에 대한 보고회나 토론회를 가진다면, 우리는 학생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월된 행동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교사가 준비한 것만을 내놓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물론 교사는 적합한 제안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내놓을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에게 그 일을 제안하도록 할 때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천들은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매일 그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천이 불가능하거나 시간을 많이 요하는 복잡한 것이라면, 학생들 모두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주어 교육의 올바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 단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생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



는 일을 돕고, 실천하도록 돕는 방법이어야 하며,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1) 한주간 동안 할 일을 계획하기. 학생들이 “이번 주일 동안 ...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문장을 자신의 계획을 써서 완성해보도록 한다.

2) 함께 노래부르기 감사 혹은 기쁨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 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다. 찬송가 가사에 학생의 이름을 넣게 하거나 가사를 자신의 말로 바꿔 부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교사 또는 학생의 기도.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학생이 대표로, 혹은 모두 돌아가면서 기도함으로 그날의 과를 마칠 수도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 속에 학생들의 응답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부끄러워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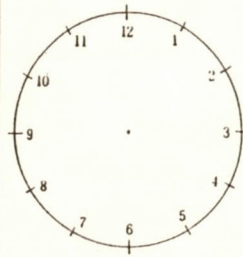
4) 일주일 동안 그림 일기 쓰기. 일주일 동안 자신의 생활을 그림으로 표현한 일기를 쓰도록 하고 교회에 가져와서 일주일간의 생활에 대해서 발표하고 함께 느낀 점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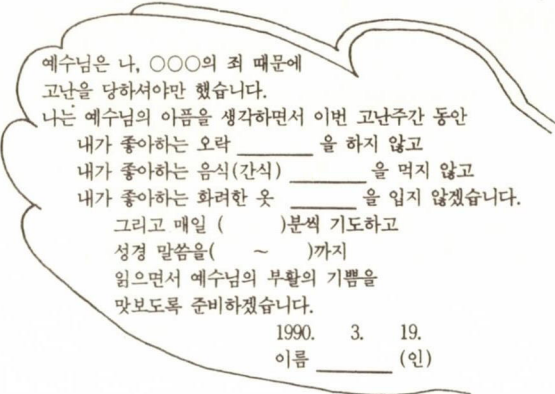
5) 엽서 나누어 주고 응답 편지 보내기. 교사가 미리 준비해온 엽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교사에게 응답의 편지를 쓰도록 해본다. 혹은 그날에 배운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친구에게 편지를 띄우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6) 스틱카 부착하기. 교실 한쪽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게시해놓고, 자신이 실천한 내용들 위에 스틱카를 부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동 반응을 유도해 보자.

## 반응 격려의 실례들

|             | 제목과 본문                 | 적 용                                                                                                                                                                                                                                                                                                                                                                                                                                                                                                                                                                                                                              |
|-------------|------------------------|----------------------------------------------------------------------------------------------------------------------------------------------------------------------------------------------------------------------------------------------------------------------------------------------------------------------------------------------------------------------------------------------------------------------------------------------------------------------------------------------------------------------------------------------------------------------------------------------------------------------------------|
| 유<br>치<br>부 | 용서하라 하세요<br>마 18:21-35 | <p>* 맞는 것을 고르세요.</p> <p>1) 오늘 외운 요절을 황금률이라고 한다.</p> <p>2) 남을 대접하는 것은 항상 돈이 많이 든다.</p> <p>3)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p> <p>* 어떻게 할까요?</p> <p>가 친구가  나는  친구에게<br/>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input type="checkbox"/> 싶다  내가  친구에게<br/>아이스크림을 <input type="checkbox"/> 하겠다.<br/>먹을때</p> |

|             |                                |                                                                                                                                                                                                                                                                                                                                                                                                                                                                                                                                                                                                                                                                                                                                                                                                                                                                                                                                                                                                                                        |
|-------------|--------------------------------|----------------------------------------------------------------------------------------------------------------------------------------------------------------------------------------------------------------------------------------------------------------------------------------------------------------------------------------------------------------------------------------------------------------------------------------------------------------------------------------------------------------------------------------------------------------------------------------------------------------------------------------------------------------------------------------------------------------------------------------------------------------------------------------------------------------------------------------------------------------------------------------------------------------------------------------------------------------------------------------------------------------------------------------|
|             |                                | <p>㉠ 몸이  나는  친구가  친구에게<br/>아파서 <input type="checkbox"/> 싶다.  아파서 <input type="checkbox"/> 하겠다.<br/>학교에 못갔을 때 학교에 못갔을 때</p> <p>㉡  노래를 부르다 나는  친구가  친구에게<br/>틀렸을 때 <input type="checkbox"/> 싶다.  틀렸을 때 <input type="checkbox"/> 하겠다.<br/>부르다 틀렸을 때 부르다 틀렸을 때</p> <p>㉢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_____ 하겠어요.</p> <p>* 다음 주일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던 경험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아요.</p> |
| 초<br>등<br>부 | <p>먼저 대접하라<br/>마 25:31-46</p>  | <p>“나를 화나게 했지만 용서해 줄게”</p> <p>“친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괜찮아.”</p> <p>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내가 먼저<br/>용서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br/>친구를 용서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p> <p>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용서하고 웃으면서 살도록<br/>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p> <p>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택하여 친구에게<br/> 서로 먹여준다. 잘 다투는 친구들끼리 하도록 교사<br/>가 주선했 주는 것이 좋다.<br/>“친구야 네가 먼저 먹어봐!”<br/>“아니야 네가 먼저 먹어”하면서 서로 먹여준다.</p>                                                                                                                                                                                                                                                                                                                                                                                                                             |
| 소<br>년<br>부 | <p>반석 위에 지어라<br/>마 7:24-29</p> | <p>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br/>어린이가 되기 위해 그림 시계속<br/>에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시간표<br/>를 만들어보세요.</p> <p>* 매일 어린이 찬송가 302장 “주의 말씀 듣고서”를 부르고<br/>기도드리세요.</p>                                                                                                                                                                                                                                                                                                                                                                                                                                                                                                                                                                                                                                                                                                                                                                                                            |

|             |                                |                                                                                                                                                                                                                                                                                                                                                                                                                                                                                                                                                                                                                                       |
|-------------|--------------------------------|---------------------------------------------------------------------------------------------------------------------------------------------------------------------------------------------------------------------------------------------------------------------------------------------------------------------------------------------------------------------------------------------------------------------------------------------------------------------------------------------------------------------------------------------------------------------------------------------------------------------------------------|
| 주<br>일<br>부 | 빌라도 앞에서<br>마 27:1-21,<br>11-26 | <p>다음 '기도하는 손' 그림에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내가 꼭 할 일을 기록해보세요.</p>  <p>             예수님은 나, ○○○의 죄 때문에<br/>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br/>             나는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br/>             내가 좋아하는 오락 _____ 을 하지 않고<br/>             내가 좋아하는 음식(간식) _____ 을 먹지 않고<br/>             내가 좋아하는 화려한 옷 _____ 을 입지 않겠습니다.<br/>             그리고 매일 (     )분씩 기도하고<br/>             성경 말씀을(     ~     )까지<br/>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br/>             맛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br/>             1990.     3.     19.<br/>             이름 _____ (인)           </p> |
|-------------|--------------------------------|---------------------------------------------------------------------------------------------------------------------------------------------------------------------------------------------------------------------------------------------------------------------------------------------------------------------------------------------------------------------------------------------------------------------------------------------------------------------------------------------------------------------------------------------------------------------------------------------------------------------------------------|



## 8. 교사에 의한 후속 과정(평가)

이제까지 우리는 한시간의 성서 학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원리들을 단계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는 평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평가를 통해서 더 나은 성서 학습을 준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발전을 위해 평가를 한다는 말이다. 그 무엇에 대한 평가란 그것의 장점이나 가치를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평가는 일을 행하기 전에 미리 해볼 수도 있고, 일을 하고 나서 할 수도 있다. 평가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평가를 위한 질문들

교사인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교수 방법을 평가하고 점진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더욱 효과적인 교수법을 체득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된다. 평가는 학습 준비 과정에서나 학습 과정, 모두에 있어 필요하다. 오히려 바른 평가 그 자체가 학습 준비나 교과 지도의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다. 학습 지도상 요구되는 질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학생에 관련된 질문들

학생들은 무엇을 배웠는가?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했는가?

흥미가 있었는가?

학생들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학생들 스스로 질문을 했는가?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그들의 공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 2) 교수 방법에 대한 질문들

학습 계획은 적절했는가?

학습의 단계들은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었는가?



교실 등의 학습 환경이 학습에 효율적이었는가?

학습에 사용된 방법들이 적절한 것이었나?

3) 교사 자신에 대한 질문들

최선을 다하여 가르쳤는가?

하지 말아도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이전의 학습보다도 오늘의 가르침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나?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 발전하는 교사는 학생과 교수 내용이나 방법, 교사 자신에 대해 항상 위와 같은 질문으로 평가한다. 또 교사는 이런 평가를 세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기록하고, 자신을 위한 좋은 자료로 간직함으로써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사직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점

1) 평가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 것. 훌륭한 교사는 자신의 가르침을 검토하기 위해 위에 제시한 질문들에 대답하고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다.

2) 평가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것. 평가는 학습 진행을 검토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습에 사용된 방법도 검토하는 것이다. 학습 진행에 대한 검토는 학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낳고, 또 그 이해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바르게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외 모든 가르침의 과정에 좋은 자료가 된다.

3) 바르게 평가할 것. 교사는 바르지 못한 정보에 바탕을 두어 평가를 하여 평가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정확하고, 평가 행위 자체가 진실해야 한다.

4) 계속적으로 평가할 것. 교사는 평가를 매분기 혹은 일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나 질문, 간단한 테스트 등의 방법을 통해 매주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잘 기록 보관한다.

5) 평가를 귀찮게 여기지 말 것. 평가 행위는 교사에게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흥미있는 일이다. 즉 적절한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이를 수행하는 것은 모두에게 흥미있는 일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 평가 행위 자체가 흥미있는 교수 학습 방법일 수 있다.

6) 평가 방법, 평가 자료들에 신축성을 기할 것. 일정한 평가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른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은 서로 다르고, 교육 여건도 교회마다 틀리고, 동일한 학생일지라도 그가 처한 여건에 따라 때로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평가의 실례 : 가르침에 대한 평가

|       |  |
|-------|--|
| 날짜    |  |
| 교과 제목 |  |
| 단원 제목 |  |

#### 학습 목표

1. 나는 학습 목표를 분명히 마음에 지니고 있었나?
2. 학습 목표가 학생들에게 분명히 전해졌나?
3. 전과정을 통해 학습 목표를 확실히 이해하며 진행했는가?
4. 학습 공과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하는가?

| 예 | 아니오 | 모르겠다 |
|---|-----|------|
|   |     |      |
|   |     |      |
|   |     |      |
|   |     |      |

#### 학습의 시작 (도입)

1. 제 시각에 수업을 시작했는가?
2. 공과를 시작할 때 학생들이 주목했는가?
3. 주의 집중의 방법이 오늘의 학습 목표에 부합했는가?
4. 주의 집중의 방법이 적절했는가?
5. 주의 집중의 방법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었는가?
6. 오늘의 방법이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이었나?

| 예 | 아니오 | 모르겠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서 연구

1. 모든 주제를 학생들 모두가 명확히 이해했는가?
2. 모든 학생들이 재미있어 했는가?
3. 중요한 주제들 중 생략한 것은 없었나?
4.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빠뜨리지 않았나?
5. 각각의 요점에 대해 적절한 시간을 할당하였는가?
6. 성경 말씀에 대한 나의 가르침을 하나님이 기뻐하

| 예 | 아니오 | 모르겠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 것인가?

7. 학습에 학생들을 참여시켰는가?

|  |  |  |
|--|--|--|
|  |  |  |
|  |  |  |

#### 적용의 문제

1. 학생들은 오늘의 공과 내용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했는가?
2. 학생들이 오늘 배운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3.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오늘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4. 생략해도 좋을 것을 더 가르치지 않는가?
5. 개개의 적용의 문제에 적절한 강조를 했는가?
6.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나의 적용 방법을 주께서는 기뻐하실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습의 종료

1. 수업을 마친 시간은 적절했는가?
2. 수업을 마치면서 목적인 바를 강조했는가?
3. 준비한 내용을 모두 가르쳤는가?
4. 학생들은 수업이 더 계속되기를 원했는가?
5. 수업을 마치는 방법은 가장 좋았는가?
6. 학생들이 나의 가르침이 좋아서 다음 주에도 나올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모르겠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분반공부를 즐겁게 하려면

즐거운 분반 공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자.

### •자리에 앉힐 때

대개의 경우 분반 공부는 긴 의자에 어린이들을 앉히고 하게 된다. 그럴 경우 교사는 뒷줄 벽면 가까이에 자리잡고 앉으면 분반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보다 작은 목소리로 수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 •새로 온 어린이

신입생으로서 교회 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자기 또래의 놀이 동무가 없거나 또는 집에서 지나치게 보호를 받아온 어린이들의 경우는 더욱 적응하기가 힘들다. 일반적으로 새로 온 어린이를 기왕에 나오던 어린이들에게 소개시키고 있는데 그 반대로 반 아이들을 새로 온 어린이에게 소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신입생이 소속감을 빨리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 •초임 교사

5,6학년 어린이들은 함께 모여 있을 때 유난히 더 쫓겨난다. 때로는 선생님을 골려주려고까지 한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 •출석부를 때

어떤 학생의 이름은 비슷한 다른 낱말 때문에 놀림감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아이에게 물어서 이름 뜻을 자기 반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 •결석한 어린이

결석한 어린이가 교회에 오면 한 주간만 빠졌어도 보름 만이다. 어떻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을까?

“어쩐지, 지난 주일 우리 반이 모범상 탔더라. 임마! 지난 주일 얼마나 조용했는지 알아. 개구장이 녀석.”



“내가 없어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 보고 싶었어. 무슨 일 있었니?”

•지각한 어린이에게

“또 지각이야, 어휴, 이 게으름뱅이. 너희 형도 매주일 지각해서 속 썩이더 니. 너도 또 그렇구나. 너희 아버지도 예배 때 지각하니?”

지각하는 어린이에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늦었다고 예배 시간에 못들어가게 하거나 벌 세우거나 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 보자.

“오늘은 이쪽 줄에 앉아서 예배드려야겠다. 왜냐하면 네가 너희 반을 찾아 가면 다른 친구들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습관적으로 늦는 어린이는 주일의 생활 습관 때문일 수 있다.

“집이 어디지? 몇 분이나 걸리니? 그러면 우리 예배 시간이 〇시이니 아무리 늦어도 〇시〇분 전에는 집에서 떠나야 하겠구나! 밥은 몇 시에 먹지? 아빠하고 같이 식사해? 아빠가 늦게 식사해서 그렇구나!”

지각한 상황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좋다. 성격, 가족들을 들먹이며 어린 마음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떠들 때

속삭이는 말과 소리를 내어 하는 말의 차이를 토의케 하고 그 적절한 사용법을 이야기해 준다.

“조용히 해!”하고 강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애들아! 좀 조용히 말해 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자는 일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시끄러워지지만 후자는 점차 조용해짐을 경험할 수 있다.

•책을 읽을 때

요즘은 많은 교회가 학생용 교재를 사용한다. 학생용 교재는 그 주일에 배울 내용에 대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학생용 교재를 돌아가면서 읽으면 수업에 좀더 참여케 된다. 이때, “선회 15쪽 읽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자, 누가 읽을까?” 주위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 더 좋다. 직접 지적은 나머지 학생으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자, 오늘 몇 과지?”

“그럼 누가 읽을까?”

“...부터 읽고 그 다음부터는 한문단씩 돌아가면서 읽는다. 시작.”

•책을 읽고 있을 때

책을 읽고 있는 시간에 현진이가 윤희를 연필로 찔렀다. 윤희는 화가 나서



뒤를 돌아다 보았으나 아무 말도 안했다. 현진이는 선생님께 불러갔다. 선생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 선생님은 큰 소리로 꾸짖기 시작했다.

“한번만 더 해봐! 밖으로 쫓아내겠어. 이제는 아주 지쳤어!”

현진이는 꾸중을 들을 때 눈을 아래로 내렸으나 돌아서서는 히죽히죽 웃고 있었다.

학생들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동적이다. 교사는 사소한 일에 신경쓰지 않는 것이 좋다. 더욱이 속삭이고 있는 어린이를 향해 소리지르는 것은 무익하다. 단지 눈짓이나 손가락으로 지적하고 조용히 할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편이 좋다.

#### • 학습 활동을 할 때

학습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어린이들이 가끔 있다. 오래 전 에스더 이야기가 그림을 함께 그리며 공부하게 되었는데 국민학교 2학년짜리 한 어린이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자기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럼 여기서 다른 아이들이 그리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리고 싶으면 그리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따라와 앉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선생님, 나 요즘 굉장히 바빠요. 학교에 다녀오면 곧 태권도장에 가고요, 일주일에 이틀은 피아노 렛슨 받고 이틀은 그림 지도 받으러 다녀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과외공부해야 하고 그후에 숙제해요. 요즘은 T.V도 볼 수 없어요.”

그 개구장이 꼬마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줄은 미처 몰랐었다. 그의 학습 활동 불참을 허락하고 그의 사정을 들어준 이후 그는 또한 나의 말에 언제나 온순히 반응하였다.

#### • 학습 활동을 하다가

H. 기너트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어린이가 수업 시간 중 노아의 방주를 찰흙으로 열심히 만들었다. 모양을 만들고 돛을 세우고 선생님께 보이려고 들고 오다가 옆 아이와 부딪쳐 박살이 났다. 울면서 덩벼들어 싸움이 났다. 이때 감정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배를 열심히 만드는지 보았어. 얼마나 애썼는지 잘알지. 그것이 깨어졌으니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해. 여기 아직 쓰지 않은 찰흙이 있으니 기분날 때 멋진 배를 하나 더 만들어.”

기너트 말하길, 이 선생님은 학생의 분노를 무시하거나, 또 상대 학생을 꾸짖거나 어떻게 깨뜨리게 되었는지 동기를 묻지 않았다. 선생님은 오직 학생

을 위하여 자제력과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전념했다고 설명을 하였다.

#### • 발표할 때

좋은 수업을 잘 진행시켜 놓고 막판에 학생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교사와 학생 사이가 피곤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연구 수업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70명의 학생이 5 그룹으로 나뉘어 수업 활동을 하고 마지막 정리 시간을 가졌다. 벽신문, 연극, 성서 본문 연구, 주제 토의, 미술 활동이었는데 연극팀이 자기 차례가 되었으나 너무 준비할 것이 많아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던 다른 팀에게 먼저 발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기 차례에 하겠다고 하며 거부했다. 그때 참관하셨던 한 분은 이렇게 설명했다. 자기 일에 관심을 쏟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다른 팀 대신 자리채움이나 시키는 것은 싫다는 표현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정성드려 준비한 감정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 • 평 가

판단하는 칭찬은 피하고 이해심 있는 칭찬은 건설적이다. 성격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좋다.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너무 빨리 너무 자주 반응하면 귀찮아 한다.

#### • 훈 육

훈육은 수술하는 것과 같아서 정확성과 시의 적절정을 요구한다. 개인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정확히 자기의 원함이 무엇인지 말하도록 돕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동기나 경과를 글로 쓰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켜야 할 규칙을 어겼을 때에는 그 규칙을 정확히 환기시킴이 필요하다. 때로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위해 매를 들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학생 편에서 보면 학대받는 경우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 부서별 공과 모음

|          |         |
|----------|---------|
| 1. 영,유치부 | 정언희 전도사 |
| 2. 유년부   | 김연이 전도사 |
| 3. 초등부   | 황정순 전도사 |
| 4. 중등부   | 홍창민 목사  |
| 5. 고등부   | 송태근 목사  |
| 6. 대학부   | 김해규 목사  |
| 7. 청년부   | 김창수 목사  |
| 8. 새가정부  | 최인근 목사  |
| 9. 장년부   | 김성윤 목사  |
| 10. 노년부  | 김영구 목사  |





## 제 1 과, 우리 나라를 사랑해요

읽을말씀 벰전2:13-17

외울말씀 “형제를 사랑하며(양팔을 옆으로 펴서 손 끝을 안으로 까딱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양손을 깎지껴 가슴에 댄다) 왕을 공경하라”(양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올린다) - 벰전2:17 하반절 -

학습목표 1)우리 나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생각하고 알게 한다.  
2)우리 나라 것들에 대하여 긍지를 갖고 사랑하게 한다.  
3)우리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대통령 할아버지를 위해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한다.

학습자료 1)애국가 테이프와 녹음기  
2)우리나라 지도 그린 것, 무궁화 꽃이나 그림, 태극기, 남.여 한복, 한식(밥, 된장국, 총각김치, 깍두기, 콩나물), 과일(참외, 수박, 딸기, 포도)  
3)대한민국 지도, 태극기, 무궁화 꽃, 밥, 콩나물, 송편, 딸기, 참외, 수박, 포도, 한복 등의 그림을 카드로 만든다.  
4)유아 남.녀 2명에게 미리 한복을 입고 오게 한다.

학습활동 1)예배전 자유놀이 시간이나 또는 학습활동 시간에 애국가를 반복하여 들려 준다.  
2)학습자료 2)번의 것들을 유아들이 보기 쉽게 전시 한다.  
3)학습자료 3)번의 카드를 가지고 질문하면서 찾아내기 놀이를 한다.  
4)학습자료 4)번의 유아들을 앞세우고 옛날부터 입었던 우리나라 옷이라고 이야기 해주며, 유아들로 하여금 직접 만져보고 살펴보게 한다

유아이해 유아들은 소 그룹에서 즐겁게 잘 논다. 아직 부모와 형제와 그 밖에 친구들 몇명 정도와 접촉해 본 경험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나 낯선 곳에 갔을 경우 두려움을 느끼는 유아도 있다.

그러나 건강한 아이일수록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알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일을 저지르기 잘한다. 사회 생활에 대한 경험 부족과 자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에 교사는 유아의 입장에 서서



유아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즐겁게 사회에 적응하고 바람직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 ■ 학 습 진 행 ■

### 1. 어떤 나라들이 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1년이 온통 여름 뿐인 아주 더운 나라 아프리카도 있고, 추운 곳에 사는 에스키모는 얼음 집에 살고 썰매를 타고 다닌대요.

우리 나라 옆에는 일본이란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라 이름은 무엇이라 부르나요? “대한민국” 맞았어요. 우리 나라는 토끼 같이 생겼어요.

### 2. 살기 좋은 우리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겨울에는 춥고, 흰 눈이 내려서 눈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따뜻하고 비가 넉넉히 내려서 수영하기도 좋고, 농사를 짓기에 참 좋아요.

맛있는 과일, 사과랑 배랑 포도와 굴이 주렁주렁 달리고, 밭에는 쌀과 콩, 배추와 무우가 무럭무럭 자라지요. 예쁜 꽃들도 많이 피어요.

우리 나라 사람들은 싸움 같은 것은 싫어하고, 평안하게 지내면서 공부하기 좋아해요. 또, 우리 나라에는 국군 아저씨들이 계셔서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세요.

### 3. 우리 나라의 것

우리 나라 옷은 양복인가요, 한복인가요? 한복이 우리 나라 옷이에요. 참 예쁘지요. 우리 나라 사람들은 밥과 된장국에 김치를 먹어요. 빵 보다는 떡을 즐겨 먹지요.

우리 나라 태극기를 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 나라 꽃은요? “무궁화” 우리 나라 애국가를 부를 수 있어요? 다같이 부르도록 해요. 다같이 부른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요. 먹을 것도 골고루 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우리 나라 대한민국도 주셨으니까요?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서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지요.

(기도) 하나님 살기 좋은 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 건강하게 해주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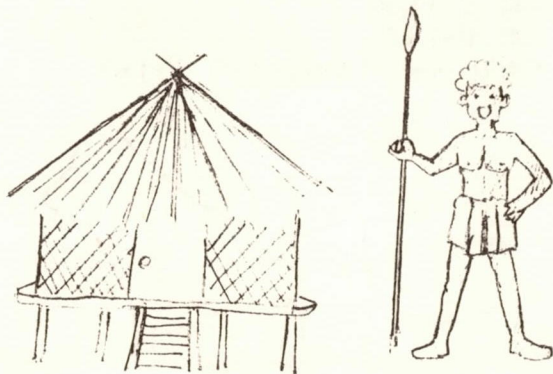
우리 나라를 사랑하게 해주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아 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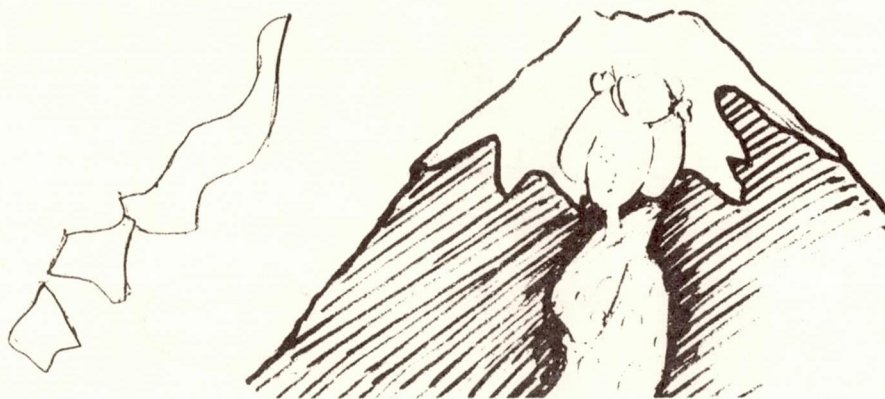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 사는 아주 더운 나라도 있어요



추운 나라에 사는 에스키모는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다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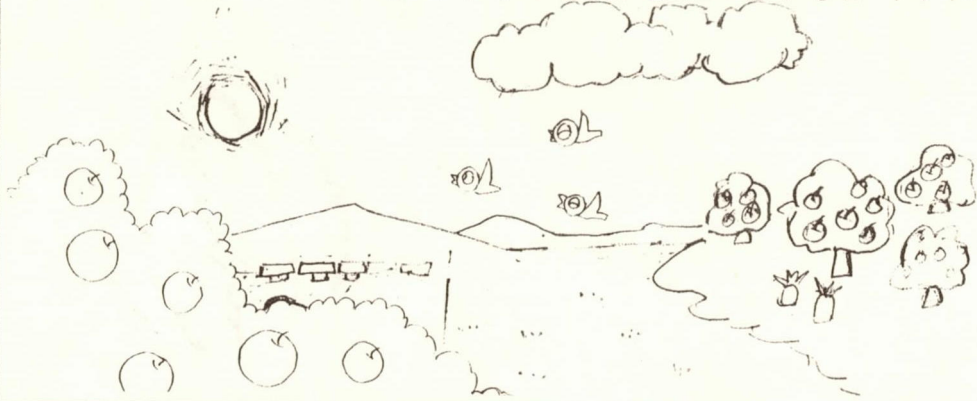
우리 나라 옆에는 일본이란 나라가 있어요



우리 나라 대한민국 지도는 토끼 같이 생겼어요  
우리 나라 꽃은? 무궁화 꽃이에요  
우리 나라 태극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나라를 지키는 씩씩한 국군 아저씨는 어디 있어요?



우리 나라는 따뜻하고 비가 잘 와서 농사하기에 알맞고 살기 좋은 나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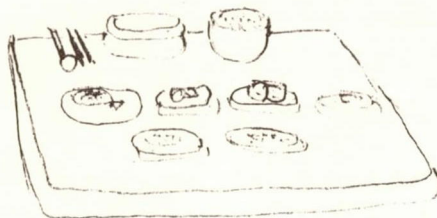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공부하기를 좋아  
해요



살기 좋은 나라를 누가 만드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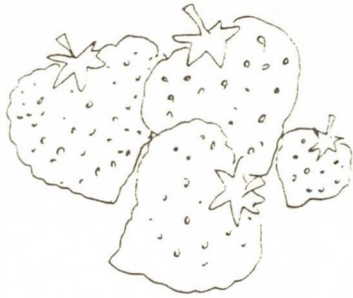
우리가 먹는 맛있는 음식을 누가  
만드셨나요?

우리 나라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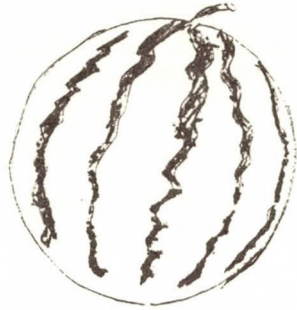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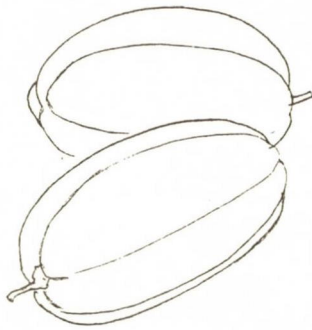
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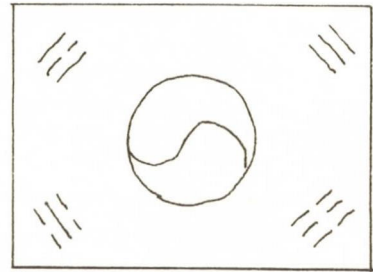
수박



참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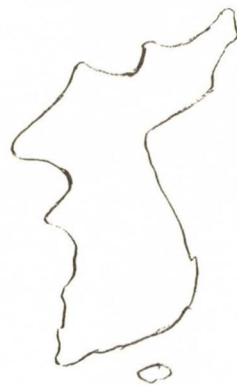
태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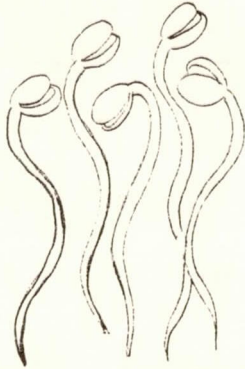
무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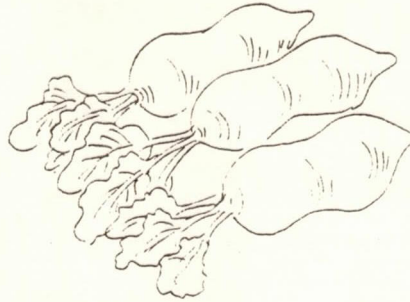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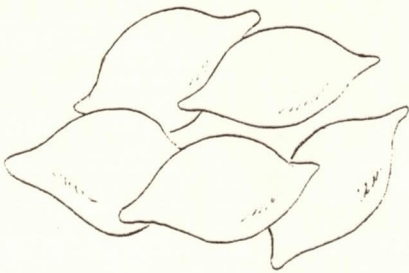
콩나물



무 우



고구마



밥



한복







## 제 1 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읽을말씀 출3:13-14

외울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14:1)

참고말씀 창1:1

- 학습목표
1.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의 일보인 것을 이해하게 한다.
  2.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임을 알게 한다.
  3. 다른 친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게 한다.

### ■ 공과의 목적 ■

예수를 믿는 학생이라도 불신 친구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요청을 받을 때에 당황하고 주저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해서라기보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경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게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무안하고 당황해 본 경험은 어린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마저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무신론 사상과 유물론 사상이 온 세계를 삼키려는 이 때에 본 공과는 어린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성경 지식을 넓히고 아울러 다른 친구에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 공과의 실제 ■

#### 1. 도입(5분) - 어리석은 이야기

국민학교 1학년은 아직 국문 해독이 어려운 어린이가 많을 것이므로 선생님이 천천히 읽으면서 첫번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표하게 하고, 왜 옳지 않은지 이야기해 보게 합니다. 어린이들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만든 자가 만들어진 물건 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납득하게 될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이 세가지 질문에 X표를 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 )속에는 건물보다 선제한 사람을 인식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구(도입에서 본문 공부로 넘어감) : “사람들은 건물이 건축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쉽게 믿으면서도,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이 이 세상을 짓기 전 부터 스스로 계신 분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성경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전개(성경공부, 15분) - 성경이 말씀하는 것

어린이 교재의 두번째 부분은 세계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대답하게 하십시오. ‘성경적 배경’(교사 교재 뒷편 참고)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재성과 자존성을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설명이 끝난 후 오른 쪽의 글을 또박또박 읽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아멘’이라고 답하게 하십시오.

경과구 :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여 만물을 보는 것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입각한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를 주위에 있는 사물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 3. 진행(5분) - 출생의 순서(숙제로 어머니와 함께 공부해 오게 해도 좋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원인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 부터 번호를 써가게 하십시오. 숫자를 볼 수 없는 어린이는 입으로 순서를 말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에 1번을 쓰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나, 2번이 천지 만물인지 아버지 어머니인지는 혼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먼저 준비해 주셨다는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어렵지 않게 2번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레 번호를 써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과구 : “만물과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았습니다. 인형이 있게 된 것은 나 때문이고, 내가 있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이고, 부모님이 있게 된 것은 조상 때문입니다. 조상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지 그림을 보며 함께 생각해 봅시다.”

## 4. 결론(생활적용, 5분) -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여 표하게 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함께 나눕니다.

이유 1.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므로 친구의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유 2. 하나님이 살아 계시므로 우리는 그 분께 기도할 수 있다.

이유 3. 하나님은 우리가 그가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 한사람 한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심을 믿는 지를 확인하고, 그 사실들을 친구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격려한 후, 교사의 기도로 혹은 어린이의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있기 전 부터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성경적 배경 ■

축복의 완성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으므로, 아무도 이 지상의 축복권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반(자연) 계시와 특별(성경) 계시, 인격(아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다.

#### 1. 일반 계시 (롬1:18-20, 창1:1-25)

하나님은 우주 전체의 구조를 통하여 그의 존재와 완전함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밝히 보여줌으로서 눈만 뜨면 그를 보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영광의 표가 새겨져 있으며, 그것이 너무 분명하고 독특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아무도, 비록 우둔하고 무식한 자일지라도 무식해서 모른다는 핑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일부러 하나님 없는 자 처럼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찬양 드리기에 합당한 선행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들을 드러내는 증거들에 끊임없이 둘러 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저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그에게 경배드리기를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부인하거나 부정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시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은 그가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종교의 씨를 심어주셨고, 인간의 이성과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빛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 마음 가운데 생애 본능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논할 여지가 없다. 목적을 짚아놓고 신으로 섬기는 이 모든 행위가 인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의 씨가 있어 종교적 경향이 싹튼 것을 보여준다.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신성의 감성을 소유하여 아무 사람도 무식의 구실 밑에 자신을 숨기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기독교 강요 1권 3장 1절).

## 2. 특별 계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신앙으로써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증거에 기초한 신앙이며, 그 증거는 근본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특별 계시에서 발견된다.

### (1) 창세기 1:1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의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의 사역부터 논증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기정한 사실로 전제하고 그것의 이론적 증명에 힘쓰지 않는 것은 그 진리에 의문의 요소가 없음을 확인하는 태도이어서 최선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논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추구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자이다(히11:6).

‘태초’는 히브리어 ‘베레쉬트’로서 ‘맨처음에’라는 말이다. 천지가 시작된 그 출발점,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을 말한다. 천지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지만 시작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절대적인 본질로부터 유출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우주가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초기 행동의 선언이므로 행동이 있게 되려면 행동자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보다 먼저 계심을 증명된다.

하나님의 선재성(영원성)을 더 확실히 뒷받침해 주는 말씀은 요 1장 1절 말씀이다. 여기의 ‘태초’는 헬라어 ‘엔 아르케’로 창 1장 1절 말씀의 의미와 같으나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창1:1),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창조 이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직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고 있다. 이 말씀은 ‘계시니라’가 확실히 뒷받침해 준다. 이 단어는 계속성 미완료시제로서 태초의 순간을 넘어 그 이전으로 무한히 소급해 올라 간다. 비시간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은 창세 이전에 ‘말씀’이 존재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피조물이거나 창조된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피조되지 않았으며 영원한 것을 나타낸다. 요한은 시간이 있기 이전의 영원성에 눈길을 돌린 것이다.

(2) 출애굽기 3:14하 -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히브리어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로 ‘아쉐르’(who)는 관계대명사로서 ‘나는 존재한다’(I am)는 뜻으로 자존성을 강조한다. 즉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는 ‘자존자’란 뜻으로 피조된 존재들과는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I am who I am)이심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는 절대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말씀이다.

애굽 신들의 이름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인간이 붙였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애굽 사람들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영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자신이 붙인 이름이다. ‘예흐웨, 예흐웨’ 두개의 예흐웨는 존재의 동일체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다른 두 미래의 시대에 있는 같은 존재를 의미한다. ‘미래에서 미래로 나는 같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 제 2 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읽을말씀 눅10:25-37

외울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눅10:27)

- 학습목표
1. 예수님의 비유에 따라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수 있게 한다.
  2. 오늘날의 우리 주위에서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하게 한다.
  3. 이웃을 섬기는 방법을 찾아내게 한다.

### ■ 학 습 준 비 ■

#### 1. 본문 연구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로서 아마도 어린이들이 알고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비유의 목적은 특정한 부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나누어 준 것은 오늘날의 응급 처치에 해당된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만 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 성경에는 그들이 왜 그와 같이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를 만지면 7일간은 부정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갔을 것이다. 또 레위인은 영리하였기 때문에 강도가 길에 쓰러진 사람을 미끼로 삼아 그를 돌보는 사람을 덮쳐서 다시 강도질 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곤궁에 빠진 사람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핑계는 용납되지 않음을 말씀해 준다.

#### 2. 어린이들에 대해 생각해 봄

이 과의 쫓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웃에 대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배우게 할 것은 종의 자세에 대한 것이다.

## ■ 학 습 활 동 ■

「제일 처음 어린이가 도착했을 때」

1. 그림 오려 붙이기를 함 : 외울 말씀 “서로 사랑하라”를 주제로 하여 신문 잡지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 주는 그림을 오려서 백지에 붙이도록 한다.

「어린이들 모두 모였을 때」

2. 성경 이야기를 읽음 : (어린이 공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다 함께 읽는다. 그리고 나서 여러 인물들과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 함께 토론해 본다. 그리고 비유란 중요한 하늘나라의 의미를 담은 짧은 이야기라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이해시킨다. 이야기속의 각 인물들의 배경과 역할에 대해 토론해 본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담당한 책임이 있어 강도 만난 자를 도와 주기를 원치 않았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은 뜻깊게 도움을 베풀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 주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남을 도와줌으로써 생기는 일에 대해 두려워 할 때가 있나요?
3. 이야기를 연극으로 극화해 봄 : 자원하는 어린이 몇명으로 이야기 중의 인물들의 배역을 맡겨서 연극을 해 보도록 한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 여관 주인, 여관에 투숙한 사람들과 강도 등의 배역을 어린이들이 맡아서 이야기의 내용대로 연극을 해 본 다음, 어린이들에게 소감을 물어본다. 강도 만난 사람의 역을 맡은 어린이에게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지나갈 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제사장이나 레위인역을 맡은 어린이에게는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때 어떻게 느꼈는지, 강도 만나 다친 사람으로서 사마리아인 친구가 자기를 친절하게 보살펴주고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를 물어본다.
4.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성격을 공부함 :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며 반(半) 이방인계의 후손으로서 유대 혈통에 속하지 않았다. 그 조상들은 앗수르왕이 바벨론과 구다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둔 자들이다. 하여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었다. 요8:48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에게 욕설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오늘날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룹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 학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영, 호남 간의 지역 감정, 친한 친구끼리만 이야기 하는 것 ... 등).
5. 비유의 내용을 다시 써 보게 함 :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신문 기자가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가정하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신문 기사를 써 보도록 한다.

6. (어린이 공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읽음 : 다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읽게 한 다음 질문을 한다. 제일 재미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대도시의 길거리에서 집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담요와 베개를 가져다 주기를 결정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서 무엇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새롭게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등의 질문을 하고 기도로 마친다.



## 제 2 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읽을말씀 눅10:25-37

외울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눅10:27)

누가 이웃 사람인가요?

이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것 저것 여러가지를 물었을 때에 나왔던 많은 질문중의 하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밝혀 내려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했지요.

어떤 율법학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씌였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해 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율법학자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는 만족하지 않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 몹시 매를 맞고 상처를 입은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이곳을 유대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 피해서 다른 길로 갔다. 곧 레위인이 다가왔으나 역시 다른 길로 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족속이었다.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즉시 그 사람을 도와 주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응급 처치를 한 후, 짜매어 그를 나귀 등에 싣고 여관에 데려가 돌보게 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는 모자라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했다.」

“너희는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이가 이웃입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와같이 행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 제 1 과, 삼위이며 하나이신 하나님

읽을말씀 요14:1-17

외울말씀 요14:16

참고말씀 창1:26, 11:7, 마3:13-17,  
마28:16-20

학습목표 1)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도록 도운다.

2) 인간의 구원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가를 가르친다.

### ■ 교 사 준 비 ■

이번 주 공과에 겁을 먹지 않도록 하라. 삼위일체란 커다란 신비를 표현하고 있지만,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다.

삼위일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성격을 나타내 준다.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에 대한 해답이 된다.

이 땅에는 삼위일체와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보통 사용되고 있는 예화는 실제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움 되는 몇가지 경험들

을 생각할 수 있다. (학습내용 참조)

무엇보다도 가르치면서 공과를 실제에 적용하는 것을 염두해 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서 경험하는 것은 구원에의 적용과 기도이다. 구원의 계획은 성경에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이루셨으며,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우리는 성령안에서 성자를 통해 성부께 기도한다. 그러므로 이 공과의 절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는데 있다.

### ■ 학 습 진 행 ■

#### □ 도 입

학생들에게 우리의 주위에 하나이면서도 셋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본다.

이를테면, 세상은 물질과 공간과 시

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은 높이와 넓이와 길이로 구성되었고,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삼위이며 하나이신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인가?



## □ 전 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이다.

물론 이 단어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게 한다) 그러나 이 단어의 근원은 성경에 등장하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창1:26, 11:7을 찾아 읽도록 한다. ‘우리’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게 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엘로힘’(Elohim)은 하나님의 성품의 복수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구약의 말씀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번에는 마3:13-17, 28:16-20을 읽도록 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격의 이름들을 찾아보게 한다. 어떤 이름들이 등장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그러므로 비록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요, 그러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 세분의 인격이 어떻게 일체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 학생들로 하여금 요14:1-17의 말씀을 펴서 보도록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맺세지 중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강조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1절) 그들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하는 것 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9절)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이미 나타내셨다(요 1:18).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11절) 인간관계에서 사람은 서로 서로 분리된 인격체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두 인격이면서도 생각과 감정과 목적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가 성령 사이에도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학생에게 요 14:16-17을 큰 소리로 읽힌다)

여기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부른다. 그 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오직 아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성령은 성자를 나타내 주시며, 성자는 성부를 나타내 주신다. 그러나 그들은 세 분의 독립된 인격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개념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 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 □ 적 용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우리가 가질수 있는 대표적인 인격적 교제는 기도와 예배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요14:13-14).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엡6:18).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갈급함과 기도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아내신다(롬8:26).

그러므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갖는 대표적인 인격적 경험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며, 성자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성부께 나아가도록 해 주신다.

우리가 비록 이성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찬송가 9장), 학생들이 하나님의 실재를 경험하도록 간구하라.

## □ 평 가

1)교리적인 내용 보다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도록 강조하였는가?

2)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다. 예배와 기도 생활이 그들의 삶 속에 체질화 되도록 강조하였는가?

## ■ 이 주간의 경건 생활 ■

| 요일 | 본 문       | 생 활 의 적 용 | 평 가 |
|----|-----------|-----------|-----|
| 주일 | 창 1:1-31  |           |     |
| 월  | 창 2:1-25  |           |     |
| 화  | 창 3:1-24  |           |     |
| 수  | 시 33:1-9  |           |     |
| 목  | 고후5:14-21 |           |     |
| 금  | 엡 4:17-32 |           |     |
| 토  | 골 3:1-10  |           |     |

중등부(학생용)

## 제 1 과, 삼위이며 하나이신 하나님

읽을말씀 요14:1-17

외울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  
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14:16)

### ■ 토의 및 활동

1. 우리 주위에 하나이면서 셋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서로 토론해 보자.
2. ‘삼위일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가? 있다면 성경 어디에 있는가?
3. 창1:26, 마3:13-17, 28:16-20을 읽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격의 이름들을 찾아 보자.

### ■ 성경 연구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다음의 성경 귀절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1.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는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1절)

---

---

2.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제자 빌립에게 무엇이  
라고 대답하였는가?(9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3.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일체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귀절을 찾아 쓰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체의 관계가 성령  
하나님 사이에도 존재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오직 아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  
다. 다음의 성경 귀절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4.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분이 하는 일은 무엇인  
가?(16-17절)

5.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 주  
신 최고의 선물이다(16절). 이 사실이 우리의 기도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  
인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성부  
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성령은 성자를 나타내 주시며, 성자는 성부를 나타내  
주신다. 그들은 세 분의 독립된 인격이시지만,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  
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개념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 생활의 적용

1.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인격적 교제는 기도이다.  
다음의 공란에 기도문을 작성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표시하라.

2. 금주간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예를들면, 찬송가 9장)을 골라 찬양해 보라.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 이 주간의 경건 생활

| 요일 | 본 문       | 생 활 의 적 용 | 평 가 |
|----|-----------|-----------|-----|
| 주일 | 창 1:1-31  |           |     |
| 월  | 창 2:1-25  |           |     |
| 화  | 창 3:1-24  |           |     |
| 수  | 시 33:1-9  |           |     |
| 목  | 고후5:14-21 |           |     |
| 금  | 엡 4:17-32 |           |     |
| 토  | 골 3:1-10  |           |     |

## 제 1 과, 구원의 확실성

읽을말씀 롬5:1-5

외울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롬5:1)

### 생각을 위한 질문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다음에도 여러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 집니다. 무엇이 그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인지 말해 보세요.

---

---

---

\*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해 구원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이 신자답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다시 구원의 문제가 불안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 본문 이해

로마서 1-8장까지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1-4장까지는 ‘칭의’에 관한 부분이고, 5-8장까지는 ‘성화’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까지가 ‘칭의’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5-8장까지가 무엇에 관한 설명이냐는 데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1-4장까지 한 얘기를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5장 이후로 연결해 가는데, 5장에서 처음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제 눈을 떴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신 그 구원과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을 따라서 이

렇게 살아라'하는 요구로 나온다면, 성화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 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화'로 들어가지 않고 '영광'의 대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두 산맥이 있다면 '칭의와 성화'가 아니라 '칭의와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구성입니다. 먼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근거를 8장까지 충분히 밝히고, 그것에 근거하여 12장부터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칭의 다음에 영화가 오는 식으로 로마서를 구성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확증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구원을 바라 보는 눈은 두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는 눈과 인간의 안목에서 보는 눈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식되고 경험되어지는 순서대로 보게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목표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이다'라고 보게되는 것이고, 경험한 자에게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가는 지가 주된 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정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촛점은 이와같이 하나님이 그곳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성화의 단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3-5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 언단,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단계는 각 단계 마다 영광에 이르는 자리의 한 과정으로 잠깐 나타날 뿐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과할 것이지만, 결국 영광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끌고 가시고야 말 것이라는 데 그 촛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화의 과정 동안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곳까지 뛰어 가도록 하계끔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집념 어린 사랑입니다.

우리는 도달할 수 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훈련자가 훈련생들을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2시간 안에 20km를 달려서 목적지



까지 가야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선착순 몇 명만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탈락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모두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한다. 첫번째 낙오하면 기합받고, 다음 날 다시 한다. 또 낙오하면 더 기합 받고, 다음 날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책임있는 이야기입니다.

#### 이해를 위한 질문

1. 바울 사도가 칭의 다음에 바로 영화에 관한 부분으로 로마서를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중간에 흔들리는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시각으로만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구원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은 어떤 것입니까?

---

---

#### 정리를 위한 질문

구원의 단계에는 칭의, 성화, 영화가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웠고, 오늘은 칭의된 자라면 영화까지 보장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문제인 불순종과 실패는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

\* 오늘은 구원의 확실성 문제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구원의 전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확실성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공부하겠습니다.



## 제 1 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읽을말씀 요1:1-18

외울말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 (히1:1-2)

참고말씀 롬1:18-32, 히1:1-3

- 학습목표
1.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데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여주며 그의 계시의 적절한 반응을 보이도록 격려한다.
  2.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계시를 수납할 수 있으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한다.

### ■ 본 문 연 구 ■

1. 본문의 중심 내용 :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즉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분명하게 나타내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2. 중심 단어 연구 :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시초를 뜻한다. 여기서는 그 시초 이전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 「말씀」은 원래 理性, 고려, 계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여러가지 뜻으로 쓰여졌다. 여기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독생자」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성격을 드러낸다.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대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요1:12) 중에서 특수한 아들이심을 가리킨다.

인간을 가리켜 우리는 불가피하게 종교적인 존재라고 일컬어 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항상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존재의 기원과 의미를 알려고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주관하는 ‘그 어떤 무엇’을 하나님이



라고 보고 그 실체를 규명하려고 계속 노력해 오고 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는 어떻게 생긴 분인가?’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는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 이처럼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 또한 오늘의 세상은 하나님과는 상관 없이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그 소견에 옳은대로”(삿21:25) 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의미없는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묻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 ■ 주 제 연 구 ■

### 1.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식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시도해 왔다.

- 1) 우주론적 논증 - 우주는 그저 우연히 생겨나지는 않았다. 변하는 우주 배후에는 변하지 않는 근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 2) 목적론적 논증 - 이 우주의 질서와 계획은 하나님을 보여 준다.
- 3) 이성적인 논증 - 이성적인 개인과 우주가 이성적인 하나님을 보여준다.
- 4) 도덕적인 논증 - 우주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과 당연성이 도덕적인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러한 논증들이 다 합리적이고 그럴듯 하지만, 인간의 논증을 통해서서는 ‘스스로 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은 피조물이며 동시에 타락하였기 때문이다(욥11:7, 고전 1:21, 롬11:33).

### 2.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인간에게 계시하셔야 한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에게 자신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여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 1) 계시의 종류

- a)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 - 계시의 양식에 따른 구별이다. 자연 계시는 인간의 구조와 자연 현상을 통하여 전달된 계시이다(롬1:20). 한편 초자연 계시는 꿈이나 구전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전달된 계시이다.
- b)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 계시의 성격과 대상에 따른 구별이다. 전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바탕을 둔 계시로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실현시

키는데 그 목표를 삼고 있다. 후자는 구속주와 죄인의 관계에 바탕을 둔 계시로서 인간의 구원을 실현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2) 일반계시의 불충분성과 특별계시의 필요성

일반 계시는 직접적인 말씀 전달의 형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그나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어두워졌으므로 (요1:5, 롬1:18, 엡4:18, 골1:13) 많은 도움은 되지만, 신지식의 확실한 기초는 될 수 없다. 따라서 특별계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 3) 특별계시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방법은 대략 세가지 종류로 구별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사상과 의지를 음성, 꿈, 환상 등을 통하여 전달하셨다. 셋째로는 이적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특별계시는 인간의 구속을 위한 계시이며, 말씀과 사신의 계시이며, 역사적인 계시이다. 그러나 특별계시 중의 특별계시는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영원한 형태를 취하여 후대를 위하여 보존된 것이다.

## 3. 믿음 - 계시의 수납

- 1)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할지라도,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인식을 통해서만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 2)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요7:17, 요일5:13, 롬8:16, 엡2:8-9).

### ■ 연구를 위한 질문 ■

1.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반계시를 하셨다고 롬1:20-21은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 내적으로 \_\_\_\_\_ (19), 2) 외적으로 \_\_\_\_\_ (20)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방인)은 이 계시를 어떻게 취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롬1:21-28)
3. 사람들(이방인)이 계시된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롬1:21-32)

4. 요1:1-18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어둠의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 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적어봅시다.
5.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 주신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으며, 왜 그러합니까?
6.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서, 특별게시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보십니까?

#### ■ 교훈과 적용을 위한 질문 ■

1.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2.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왜 크신 은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당신은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한 적은 없습니까?
4.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나의 결심과 기도 ■

이 시간을 마치면서 깨닫고 결심한 것을 간단하게 발표한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 ■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봅시다 ■

1. 계시와 믿음과의 관계를 좀 더 연구해 봅시다.
2. 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경우는 없는가? 일상 생활속에서 한 번 점검해 봅시다.
3. 다음의 성경 본문을 좀 더 읽어 봅시다.  
(사40:5-31, 신8:1-3, 갈1:11-2:2, 출3:1-17, 시78:1-72, 사6:1-8)

#### ■ 다음 시간을 위한 준비 ■

1. 다음과의 성경 본문을 충분히 읽어 옵시다.
2.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 옵시다.



## 제 1 과, 계약 관계 안에 있는 교회와 국가

읽을말씀 삼상 8:4-9

외울말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삼상 8:7)

참고말씀 롬 13:1-7

- 학습목표 1. 국가의 기원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하게 한다.  
2. 교회와 국가는 상호 보완적인 계약 관계를 가짐을 인식하게 한다.

### 공부할 준비

우리는 이 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와 국가」에 관한 주제를 구약의 사무엘서를 통해 공부하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두가지 과제를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사무엘서를 잘 숙독하는 것과 아울러 그 성경 말씀과 더불어 그 안에 계시된 사회와 국가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얻는 일이다. 우리는 주어진 성경 본문을 잘 연구하여 그 안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각 단락에 담겨진 일반적인 내용들도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공과 개요

1. 국가와 정부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2.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 앞에서 상호 보완적 계약 관계를 가진다.

### 기도 인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하여 주실 때에 그런 지식과 은혜를 힘입는 것이다. 그러므로 겸허한 자세로 공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문 해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져 사사 직무를 일선에서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정치 질서가 문란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19-20절).

하지만 백성들의 이런 요구는 1)왕에 대한 그릇된 개념과(5, 20절의 '열방과 같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인본주의 개념) 2)왕을 구하는 그릇된 동기(5절, 사무엘의 사사직을 부정하려는 동기) 때문에 사악한 것이었다.

더우기 그들의 요구는 결국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치리를 거부하는 것이었으며, 선민으로서의 고유한 특권과 사명을 포기해 버리고 이교(異敎)의 무리들과 같이 되고자 한 바 하나님께 대한 독립 선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도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악한 요구에 응답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간 왕이 가져다 주는 폐해를 체험하게 하여 마침내 당신만이 참된 왕이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백성들의 반역적 요구는 배교자이며 포악한 군주인 사울을 출현시켰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상징하는 예표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단9:26-27, 마24:23-31, 계19:19-21).

## 접 촉 점

오늘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도 종교와 국가의 두 영역이 서로 지나치게 대립되거나 심한 혼란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근래에 어떤 나라에서 실시된 선거에서는 종교에 의해서 표가 확연하게 나뉘는 현상마저 보였다.

교회와 국가는 어떤 고유한 영역을 가지는 것일까? 그 두 형태는 어디서 기원했는가? 또 그들의 상호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잘 정착된 선진국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서도 요구되고 확립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 공과 진행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진다. 어느 쪽이 진실인가?

1)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 2)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나라, 즉 지상 세속 나라의 시민이다.  
 3)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시민이다. 즉 그는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일찌기 「디오게네투스」는 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인 동시에 그가 속한 세상 나라의 시민이다. 저들은 저들 나라에서 각자가 살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지상에서 바쁘게 지내나 저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나라의 복합적 상호 연관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 1. 국가와 정부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앞서 국가의 기원 문제를 논할 때 구약 이스라엘의 지상 왕국이 설립되려 하는 본문의 상황을 생각하려 한다. 교회와 국가 문제는 아득한 옛날부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울 이전의 이스라엘은 국가라기 보다는 한 민족으로 부족이나 씨족 사회였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후부터 국가가 형성되었고, 국가는 그때부터 사실상 기독교 복음과 문제가 되어 왔다. 구약 시대에도 - 왕인 동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신정 사회에서도 - 국가와 종교 사이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 보면 그 시대 구약의 교회와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가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배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구약의 시인이 노래한 '여호와와 통치', 그것은 하나님의 이상이었고 친구약을 대괄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그 종을 통한 신정 통치와 대중으로 말미암는 왕권 통치와의 사이에 갈등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사무엘 선지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5절)

신17:14-20에 따르면, 왕을 택하는 법규와 왕의 행동 원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왕권 제도를 수립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창49:10, 민24:7,17)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의 나이와 사무엘 아들들의 악행을 핑계삼아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방의 국가 형태를 따를 것으로, 강력한 군사적 통치력이 발휘되기를 소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차이는 왕을 통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이나 사사를 통한 여호와와의 통치에 있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왕을 여호와와의 종으



로 세워 왕권 체제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신정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왕을 통한 여호와와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의 이기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오히려 이것은 여호와와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였다. 따라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을, 사무엘은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사실 역대 왕들 중 많은 왕들이 여호와를 부인하고 그 앞에 패역한 죄를 범했다. 그 명목과 형식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 대해 반역적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7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이 죄가 됨은 왕권 그 자체가 악한 전통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왕을 요구한 그들 나름의 사고 방식과 저의에 문제가 있었다. 그들의 소원은, 여호와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동시에 그들은 여호와와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언약관계를 거부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열방과 같이’(20절)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왕을 요구함으로써 언약을 깨뜨리고 만 것이었다(12:12, 민23:21, 신33:5). 이렇게 이방의 방식을 따른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상을 의미한다.

오늘날 민주적인 정부 형태가 존재하는가 하면, 새로운 전제주의적 세력들이 발흥하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 정부의 구상을 실현키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적인 국가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백성의 동의, 다수의 뜻, 사회 계약과 같은 인간의 의지나 대중의 요구에 의하여 우연히 자생한 것이 아니며, 창조와 보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신적 의지와 주권적인 섭리로 비롯된 것이다.

국가 또는 정부는 인간이 타락하여 죄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깨어지게 되자,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하나의 질서로서 이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의 객관적인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정부는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국가는 죄 없이 시작된 가정 제도와는 달리 인간의 타락 후에 죄악을 억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창조 질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신1:13-17, 16:18-20, 17:18-20)

## 2.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 앞에서 상호 보완적인 계약 관계를 가진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6절)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을 주어 그들을 다스리게 함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다.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두가지 이유, 곧 사무엘의 아들들이 브엘세바 법정에서 행하는 행정적 부패와(3절) 전쟁시 지도자의 필요성(20절)을 들어 왕을 세워 달라는 자신들의 요청을 정당화 시켰다. 사무엘은 이 요청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일생동안 하나님을 섬긴 사사로서의 사무엘을 배척하는 요구였으므로 감수성이 강한 그의 마음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지시한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지상 왕국을 설립하 2 때가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 달라는 장로들의 요청은 이해될 수는 있는 것이었다(호13:11).

이에 대해 칼빈은,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지정된 때와 상황이 이르렀다고 간주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왕권이 그 나라에서 성숙할 만큼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 왕국이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지정한 때를 곳곳이 참고 기다려야 마땅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들의 이유와 협의에 따라서는 안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설명이라 하겠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8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 판단은 격한 감정만큼 그렇게 심하게 그들의 소원을 책하는 것은 아니었다. 피상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러한 요구조건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

그들은 사무엘이 예언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에는 신뢰를 주었으나, 은연중에 정치적인 사건들을 해결해야 하는 최고의 감독직은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무엘의 인격을 통해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법을 거역했던 것이다. 그들은 열방처럼 왕을 세우기 원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하나님이요 왕이 되신 여호와가 자신들의 항구적인 번영을 보장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통치란 영적인 것이었다. 즉 에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통치되었다. 성경 신학에 따르면 국가란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질서로서 이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객관적인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란 사회 정의를 구현시키고 타락한 인간들이 사회적 혼동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인 것이다(롬13:1).

따라서 정부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모든 권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바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요19:20, 21, 마28:18, 골1:16). 즉 국가는 선을 권



장하고 악을 징벌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회의 종파가 다양한 것과 같이 국가와 정부에 관한 입장도 다양하다. 정부와 국가의 관계를 대략 다음의 범주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 (1)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는 설, (2) 정부가 교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설, (3) 교회와 국가는 전혀 별개라는 설, (4) 교회와 국가의 기능은 구별되나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이 있다.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은 로마 천주교도의 입장으로 이들은 중세 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교회의 지배와 통치아래 있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루터파와 영국의 성공회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다. 따라서 영국 성공회의 최고 우두머리는 영국의 여왕으로 그녀는 영국 교회를 대표한다.

그러나 재침례교도를 비롯한 과격파는 정부는 교회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들은 교회란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들의 영적인 모임이요, 국가는 세속적인 기관이므로 교회와 국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교회와 국가는 온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입장은 다르다. 개혁주의적인 교회들은 정부와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서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으로 상호 불가분리적이며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동등한 관계를 가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는 그 사역의 장이 다르다. 곧 국가는 세속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만 교회는 영적 업무를 관장한다. 이와같이 국가와 교회는 그 성격이 구별되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부터 비롯되었다.

정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영역을, 교회는 종교적인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상호의 본질적 영역을 이탈하거나 침범해서도 아니된다. 또한 두 기관은 상호 무관해서도 하나님께 받은 책임을 다 할 수 없다. 요컨대 국가는 교회의 고유 영역인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교회의 권징과 같은 신앙적인 일에 관여할 수 없다(삼상13:8-13, 대하26:18, 마16:19, 요16:36).

국가는 백성의 양부(사49:23)와 같이 교회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교파를 편애해서는 안되며,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 성경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성도들이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지켜 주어야 한다. 곧 모든 종교적인 집회나 교회의 집회가 훼방이나 방해로 받음이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택함으로써 사람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다(딤후2:1,2, 시105:15, 삼하23:3, 롬13:4). 반면에 교회는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딤후2:1-2, 롬13:4). 우리는 이 아름다운 상호 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노력하여야 한다.



문답 학습 활동

\*다음에 제시된 성경을 찾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자.

1.하나님의 권세와 세상 왕의 권세는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가?(마22:21)

---

2.빌라도가 가졌던 권세는 어디서 온 것인가?(요19:11)

---

3.사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명령)과 세상 집권자의 명령이 대립될 때 어떻게 하였는가?(행 4:1-20)

---

4.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이유를 몇가지로 지적해 보라(3, 5, 20절).

---

특별 프로그램

1.보충 자료 (위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 1절)

「은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2.질문과 묵상

1)세속 정부의 권세의 기원은 무엇인가? 입증하라.

2)어떤 유형의 정부에게 신적 권위가 있는가?

3)기독교 신자가 세속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는 것을 주창하여도 좋은가?

4)우리에게 국가와 정부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또 그 감사의 이유를 생각한다면?



## 제 1 과, 이웃이란 누구인가?

읽을말씀 눅10: 29-37

외울말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10:27)

참고말씀 레25:25, 35:36,39,47, 신15:2-3,7,11-12, 출3:22, 11:2, 겔16:26, 마 5:44

- 학습목표 1)이웃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므로 관계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게 한다.
- 2)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하므로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존중히 여기도록 한다.
- 3)이웃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 4)이웃에 대한 관계는 가정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 가정 단위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한다.

### ■ 이 과를 가르칠 때의 유의할 일 ■

이 과에서는 이웃의 개념만을 가르쳐야 한다. 이웃 사랑이나 실천해야 할 일 등은 다음 과에서 계속 다루게 될 것이다. 이웃의 개념은 명확하게 가르쳐야 하며, 지금까지 잘못된 개념은 말씀으로 수정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본문의 말씀을 학생들로 하여금 정독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읽을 말씀에서 이웃의 개념만을 생각해야지 다른 문제 즉 영생이나 제사장, 레위인의 잘못에 대해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 과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해서는 안된다.

새가정부 부서에 맞게 가정 단위의 이웃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르치는 시간에 따라서 토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나 토의 시간을 많이 갖고 충분히 토의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토의 시간은 실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단원에 명시된 참고 도서를 읽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 ■ 본문 연구 ■

### 1. 성경에 나타난 이웃에 대한 단어의 뜻

- 1) 레아( ) : 친구 동료를 의미한다.
- 2) 사켄( ) : 주민이나 동료 시민을 의미한다.
- 3) 아말( ) : 친구, 교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4) 플레시온(πλησιον) : 근처에 사는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 5) 게이론(γειτων) : 인접한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KJV, RSV에는 이 단어가 약 157회 나와 있다.

### 2. 눅10:25 -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영생을 행위로 얻으려고 생각했다.

### 3. 눅10:27 - 신6:5, 레19:18을 인용한 답변이다.

이 명령들은 유대교의 중심을 이룬다.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이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이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율법 정신이 상실해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 변했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제한적이며 이기적인 동기에서 수행되었다 (눅6:32-34, 14:12-14).

## ■ 학습 진행 ■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너무나 지엽적이어서 이웃을 나와 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웃에 대한 실천적인 행위도 나에게 이익이 될 때에 관계를 유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바른 이웃관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방법도 모르고 실천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는 아니 나는 이웃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 1. 이웃에 대한 이해

#### 1) 예수님의 가르침에서의 이웃

읽을 말씀 눅10:29-37에서 이웃이 누구냐는 해답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던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예화를 통해 제시되어지고 있다. 율법사의 입에서 나온 이웃이라는 말은 모든 이방인을 제외 시킨 의미이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언급된 이웃이라는 개념을 바

르게 정립시켜 주신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혹은 내가 이웃으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 누구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합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을 율법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질문이 지금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웃은 인종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계파간에 심지어는 같은 신앙 안에서만의 어떤 한계성 안에서의 이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 인종으로 보면 강도를 만난자의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 그리고 지리학적인 면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희생자의 이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웃은 장소에 의하여 규정지어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규정지어 진다는 진리를 인식하였다. 율법사는 그의 질문에서 보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인간이 이웃을 얼마나 좁게 한정시키느냐 보다는 얼마나 넓게 하여 헌신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요.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의 이웃이 확장되어야 한다. 세계는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할 것인가는 우리의 할 일이다. 예수님 당시의 잘못된 이웃관을 우리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서 잘 알 수 있다.

## 2) 구약에서의 이웃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는 매우 특징적이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다. 레19:18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들은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고 있다(레25:25, 35:36, 39, 47, 신15:2-3, 11-12, 17:15, 19:18-19, 느5:1이하, 렘34:8, 17). 그러나 구약에서도 이웃이란 용어가 애굽과 같은 이방인들을 의미할 때도 있었다(출3:22, 11:2, 겔16:26). 문제는 유대 전통을 체계화 시킨 사람들은 이런식의 이웃에 대한 광범위하게 적용된 의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결국에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이웃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 신앙의 삶을 결국 바르게 하지 못하고 형식만 남게 된 것도 여기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웃을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 한정시켜서 생각했고 이방인은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 3) 예수님 이후의 신약에서의 이웃

예수님께서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등지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씀은 바울서신 중 갈라디아서와 토마서에서도 발견되어진다.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롬13:8-9, 갈5:14).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말라고 했다(롬13:9). 야고보도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웃을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약2:1-13).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순종하며 실천적 삶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그리스도인의 이웃

앞서 배웠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이란 지역적 구분, 지리적 구분, 인종적 구분, 종교적 구분, 사회적 신분상의 구분 등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웃이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 준다면,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가정 구성원이 힘을 합해 다른 가정을 도와주고, 우리 가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은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 ■ 토의 문제 ■

1. 우리 가정의 이웃을 누구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지를 토의하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지를 서로 이야기해 보자.
2.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눅10:29-37에서 찾아보고, 그들이 이웃이 될 수 없었던 이유들을 찾아 토의해 보자.
  - 1)
  - 2)
  - 3)
3. 이웃의 정의를 내려보고, 우리 가정이 정말 이웃을 향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발표해 보자.
4. 현재 우리 가정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각자가 발표해 보자.
5. 이웃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서 맺어져야 하는가?를 토의해 보자.
6. 타 종교를 믿는 자들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만약 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토의해 보자.
7. 우리 가정에 진정한 이웃이 있는가? 있다면 무슨 이유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고, 없다면 왜 없는지를 발표해 보자. (숙제)



## 제 1 과, 창조주 하나님

읽을말씀 창 1:1-31

외울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참고말씀 롬1:20, 시104:24, 103:22

- 학습목표
1.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한다.
  2.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케한다.
  3. 진화론은 우주의 창조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 ■ 용어 해설 ■

「태초에」: 창조의 시간을 말해준다. 영원으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며 창조 사역에 의하여 비롯된 시점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인간의 이성 이 미칠 수 없는 시간이다. 또한 이 말은 태초 이전에 우리가 존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창 조」: 본문에는 ‘바라’라는 원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뜻은 무(無)에서 有를 창조하였다는 의미이다. 비슷한 단어로는 ‘아사’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창조된 물질로부터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바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활동과 관계된 것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

### ■ 본문 살피기 ■

1.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우주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2. 창조는 하나님의 무엇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까?(롬1:20)
3.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창1:4, 31)

4.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지으신 것은 무엇입니까?(1:26)

5.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1:28)

## ■ 본문 연구 ■

### 1.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1:1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두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1)말씀에 의한 창조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10회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말씀’은 세상의 창조 과정 뿐만아니라 인간의 삶과 세상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나타내준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창조의 도구이다(시33:9).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이 진실임을 믿는다(히11:3).

(2)무에서의 창조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보여준다. 이 세상이 이전에 존재하던 그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에서 생겨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어떤 다른 존재도 없었다. 그러므로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이 개념은 물질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배척하며, 또 다른 실재나 어떤 권능있는 존재를 하나님과 대립시키고,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이원론을 거부한다.

### 2. 창조의 목적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한다. 하늘과 땅의 존재 그 자체가 만드신 분이 있음을 선언하며, 그 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공포한다(사45:18).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 지어졌다(계4:11).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으며 그 목적을 성경에서 계시하셨다(창1:14-18). 어떤 피조물도, 아무리 작고 무의미해 보이는 피조물이라도 목적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다는 그 포효하는 파도 소리로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양한다(대상16:32). 들판은 기뻐하며 들판의 꽃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 옷을 입음으로 자신을 만드신 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대상16:32, 마6:28-29). 나무들도 만물과 함께 찬양하며, 나무가지를 가르는 바람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다(대상



16:33). 울창한 나무잎들은 박수치며 자기의 큰 귀와 아름다움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솜씨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기회를 만끽하고 있다(사55:12).

큰 물들도 파도가 해변에 부딪혀 부서질 때마다 손벽친다(시98:7-8). 산에서 바람이 불고 시내들이 졸졸 소리를 내며 강에서 바다로 흘러갈 때, 산도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시98:8). 마지막으로 큰 산들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합창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큰 산들을 압도할 만한 자태로 메아리를 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과 폭풍을 쏟아 붓는다(사44:23). 이 땅의 합창에 하늘의 피조물들도 찬양의 노래를 더하여 자기들의 창조자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한다(시148:1-2, 계7:11).

사람도 다른 피조물과 어울려 모든 영광을 창조자 하나님께 돌리며 경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시29:1-2). 사람은 나무와 파도처럼 기쁨에 넘쳐서 소리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고 바람과 바다처럼 기쁨에 넘치는 소리를 발하며 그의 창조자에게 찬양해야 한다(시47:1, 66:1,4, 67:4).

그러므로 시편 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 3. 진화론의 허구성

현대 과학에서 우주의 시작에 대해 대 폭발 이론을 내세운다. 대 폭발 이론은 물질과 에너지가 압축되었다가 폭발하여 그 결과로 별과 행성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발 과정은 우주가 완전히 형성되기 까지 스스로 여러번 되풀이 되었다고 한다. 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어디인가? 그럼 맨 처음의 물질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창1: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진화론이라 부르는 생명의 시작에 관한 이론을 학교에서 배웠을 것이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1859년에 펴낸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진화론을 주장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진화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생명은 태양의 무생물의 단세포에서 우연히 시작되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단세포는 차츰 차츰 더 복잡한 형태로 발달했다. 처음에는 식물 그리고 동물, 그 다음에는 인간으로...」

진화론자들은 단순한 세포에서 복잡한 조직체로의 생명의 발달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들은 '돌연변이'와 '적자생존'으로 설명을 한다. '돌연변이'란 유기체의 특징에 변화를 가져오는 갑작스런 유전자의 변화이다. 예를 들면 과일 파리의 실험을 통하여 그것의 꼬부라진 날개나 하얀 눈은 그 특성이 밝혀졌다. 과일 파리로 수 천번의 실험을 한 유명한 과학자 도브잔스키 박사는 돌연변이가 진화론의 근거는 아니라고 했다. 더구나 기능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는 돌연변이는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돌연변이는 날개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특성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다 줄 뿐이다. 생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날개나 이빨



이나 다리를 생기게 하지는 않는다.

‘적자생존’이란 생물이 살아 남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만이 자연 속에서 살아 남는다는 이론이다. 적자생존(자연도태라고도 부름) 이론에 의하면 생물의 그같은 변화는 자손들에게도 전해진다고 한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물이 이러한 방법으로 발달했다고 믿고 있다. 즉 원생 동물이 물고기로, 물고기가 양서류로, 양서류가 파충류로, 파충류가 새와 포유 동물로 발달했다는 것이다.

진화론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어떤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생물군(식물, 나무, 가축, 땅의 생물, 야생 동물)을 따로 분리하여 그 종류에 따라 각 각 재 생산하도록 창조하셨다(창1:11-12, 21, 24-25). 우리는 성경에 적힌 ‘종류’의 생물학적 의미는 확실히 모르지만, 모든 동물과 생물은 오로지 그 종류안에서만 재 생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개의 종류를 그 예로 들어 보자. 북경의 발바리부터 그레이트데인(덴마크 종의 개)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가 있으나, 이러한 모든 종류의 개는 여전히 개일 뿐이다. 진화론이 진리라면, 개의 유전자도 바뀌어 마침내 소나 닭 같은 다른 동물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물이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화석(지구의 지질층에 묻힌 과거 피조물의 잔류)에 크게 의지한다. 그러나 반은 닭이고 반은 뱀, 또는 반은 파충류이고 반은 포유동물인 과도기적 형태의 화석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진화론이 진리라면 이러한 화석이 적어도 수천 개는 나와야 할 것이다.

우주의 창조, 즉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의문은 과학으로 풀 수 없고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다.

## ■ 토 의 ■

1.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 자기의 입장을 발표해 보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유일한 창조자 이심을 믿는가?
2.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3. 창조의 사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내용을 발표해 보자.

\*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알게 해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 ■ 집에서 해오기 ■

1. 시편 98편을 묵상하고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을 써온다.
2.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시를 한 편씩 써온다.





## 제 1 과, 성경적 국가관

읽을말씀 롬13:1-7

외울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롬13:1)

참고말씀 벰전2:13-17, 행4:19,29, 마22:15-22

- 학습목표
1. 지상 나라 권세를 성경적인 안목으로 바로 이해하게 한다.
  2. 지상 나라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3.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궁극적 충성을 다하게 한다.

### ■ 본문 연구 ■

로마서13:1-7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의 중요한 면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 즉 권세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본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그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문의 핵심 내용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 질문1. 권세는 어디서 왔다고 하는가?
- 질문2. 권세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 질문3.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누구를 거스리는 것과 같은가?
- 질문4. 권세의 기능과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질문5. 권세자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가?

나라(國家, 主權)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노년기의 사람들은 나라의 소중함을 이론적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겪어온 삶의 경험을 통하여 뼈 속 깊이 느끼고 있다. 나라를 빼앗기고 직접 당했던 많은 수모와 고통의 기억이 우리 노년 세대에는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나라와 권세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나라를 잃고 당한 괴로움을 서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자유로이 서로의 겪은 체험과 경험을 털어 놓고 말하게 한다.)

### 나의 조국 우리 나라

우리는 과거 일본 제국에 의하여 주권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였다. 36년간 일제 치하에 나라를 잃은 아픔을 겪었다가 일본의 패망으로 나라를 다시 찾는 광복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점에서 우리는 나라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고 있으며 나라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도 하다.

해방후 우리는 자주 분단된 독립 국가로서 출범하였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분단된 조국 남북간의 큰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었다. 우리 나라는 민주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혜택과 유산을 누리며 이 나라에 관하여 큰 소망과 기대를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라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살아갈 삶의 터전이요,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뼈를 묻을 육신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다.

### 1. 나라 권세의 기원

지상 나라 권세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가지 이론과 학설이 있으나 성경은 국가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한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13:1). 나라 권세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것이다. 이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23장1).

「온 세상의 최고의 주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나라 권세에 대하여 백성은 어떤 의무를 가지는가?

(1)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13:1). 모든 합법적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벧전2:13,14). “왕을 공경하라”(2:18하).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적 권세에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다.



그러므로 합당한 이유없이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 (2) 의무를 이행하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13:7). 우리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여된 의무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세금 바칠 의무, 조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 밖의 지상 권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협력할 것을 협력해야 한다.

## (3)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딤후2:1).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마땅한 의무이다.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할 실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성읍에 거하든지 그 나라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일 뿐 아니라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도 요긴한 일이다.

이같이 나라 권세에 대한 백성의 의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들을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제23장 4항)

## 2. 나라 권세의 역할

나라 권세는 그 백성을 위하여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 통치 기관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와 공공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의 사명 수행이 심히 막중한 일이지만 이 일이 합법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라 권세는 공의와 질서와 도덕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로마서 13:1-7에서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일꾼이란 단어로 잘 표현하고 있다.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롬13:3-4).

국가 관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려서 선을 행한 자는 칭찬하고 악행하는 자는 벌을 주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국가의 관리는 국민의 선과 악에 대하여 보응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관리가 허리에 차는 칼은 악행자에 대한 보응의 상징이다. 이같이 국가가 그 기능과 역할을 바로 수행하는 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다.

### 나라 권세가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도, 복음 진리에 근거하여 비판할 책임이 있다. 이 기능을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사명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레 요한은 당시 위정자 헤롯왕의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하였다(마14:1-12).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소금으로서 불법과 부정 부패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상 권세가 하나님께 바칠 종교적 의무와 신앙마저도 거부하고, 독점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단호히 맞서서 하나님께 바칠 충성을 드려야 한다. 사도들은 지상 권세자의 말 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담대히 증거하면서 지상 권세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행4:19, 5:29).

### 3. 지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 지상 권세는 영원한 것인가?

지상 나라는 잠정적인 기관이다. 지상 권세는 최종적인 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이 세상 나라는 시간과 함께 지나가는 잠정적인 통치 기관이요, 상대적인 존재이다. 지상 권세는 이 세대가 끝나기 직전까지 존속할 잠정적 기관으로서 역사의 주되신 하나님께서 종말이 올 때까지 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권세를 사용하실 뿐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국가 그 자체를 절대시하거나 신격화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들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이 지상의 어느 나라에 속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라 권세자의 합법적인 모든 명령에 복종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여 백성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얻게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상 나라 위에 절대적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는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진리와 성령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장차 그의 나라 천국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의 절대적이며 우선적이고도 영속적인 충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께 바쳐야 됨을 확신하고 다짐한다.

### ■ 적용 및 토의 ■

1. 이 지상에 많은 독재, 불의한 정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2. 나라 권세의 불완전한 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3. 우리 성도들은 지상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가?
4.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은 누구, 어느 나라에 드려야 하는가?
5. 나라 권세자들은 그들의 사명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나의 묵상 ■

1. 나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2. 성도로서 지상 나라에 충성하고 애국하는 바른 길은 어디에 있는가?
3. 천국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절대적, 우선적, 영속적인 충성을 드리고 있는가?

### ■ 금주의 삶과 실천 ■

1. 이번 주에는 매일 나라와 위정자,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2. 나라를 위하여 행한 값지고 보람있던 일들을 가정에서 자녀손들에게 혹은 이웃 집 아이들에게라도 이야기해 주는 시간을 가진다.
3. 나라(주권) 잃고 불의한 권세 아래 괴로움을 당했던 이야기를 가정에서 나눈다







